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9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0월 27일 (토) 제 170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유산 아닌 교회 들여다보는 거울!

종교개혁 501주년...목회자,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교회개혁 대상들 소개

16세기 서구교회에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점들을 비판했고 교회의 개혁을 기대했다. 그러나 교황청과 주교들은 그들의 비판을 거부하여 종교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파문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됐고 서구교회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분단됐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묻고 21세기의 개신교회가 개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된다. 개신교회에서도 종교개혁의 의미가 논쟁되고 있고 개신교회의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데 어느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쟁 중이다.

주일학교의 감소, 교인들의 노령화,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조용

한 탈출, 여기에 명목상 신자나 가난한 신자 증가(Religious Nones) 등등 개신교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불거진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현상, 복음주의 백인들의 친정적 성향 등 미국사회는 신뢰할 궁극적 대상과 희망의 이유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다. 이에 교회는 정치-경제적 역량이라는 본연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을 끊고 교회 본연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초점 맞추라!

먼저 놀랍게도 현재 기독교회와 500년 전의 천주교회 사이의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종교개혁지역 탐방을 마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 사이의 공통점이 다음과 같이 10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1.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 2.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 재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3.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4.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용 5. 교회의 교권주의 6. 성직매매 7. 많은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8.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9. 많은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10.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지적은 존 W. 드 그루쉬 교수(스탠폴번주립대학교 신학부 객원교수, 케이프타운대학교 그리스도교학과 명예교수)가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주제 강연에서 밝힌 통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먼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그 명을 다했고 뒤에 남겨져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며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후계자들이 우리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는 개혁자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의 교권주의, 성직 계급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호사스러운 풍조를 개신교식으로 탈바꿈해 다시 만들어낸 위태롭게 봤다는 비통한 실상을 직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16세기 개혁을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개혁이 물려준 유산을 숙고하면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과거의 역사를 상기는 것이 아닌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종교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개혁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말씀회복 즉 강단사역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찬송가 가사를 바꿔 불러도 되나요?

CT, 존 파이퍼 목사의 감리교 전통찬송가 가사변경 찬반논란 전문가들 의견 소개

얼마 전,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여성 컨퍼런스에서 존 파이퍼 목사는 설교와 어울리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Great Is Thy Faithfulness)"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송가에 개혁주의 신학을 담은 두 절을 새로 작사해 넣었다. 이 찬송가의 원 작사자인 감리교 목사 토머스 치즘(Thomas Chisholm, 1866-1960)의 동료 감리교인들은 "자신들의 감리교 신학"을 담은 이 찬송가에 새로 첨가된 개혁주의 신학을 노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찬송가는 원작사자의 신학을 고수해야 할까? 아니면 수정이나 첨가가 이루어져도 좋은지를 예배나 교회음악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John Piper Changed 'Great Is Thy Faithfulness,' Experts Weigh In: Reformed tweaks to Methodist hit raise the question: Should hymns keep the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ir authors?)

"많은 분들이 우리의 찬송가들을 많이 복사했다. 이것은 우리 형제에게 영예다. 우리의 찬송가들을 있는 그대로 복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가들을 바꾸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원 찬송가의 느낌이나 가사를 바꿀 수는 없다."

-존 웨슬리 찬송 작사자이자 복음전도자. Collection of Hymns for the Use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찬송모음집, 1780) 중에서.

"찬송가는 신학적 진술이다. 존과 찰스 웨슬리 형제는 찬송가로 감리교의 정서를 전달한다. 감리교는 그 신학을 노래에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감리교주의에서는 찬송가란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 차별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스위 롱 팀(SWEE HONG LIM) 토론도 임마누엘칼리지 성가 프로그램 디렉터.

"새로운 신학적 방향을 위하여 어떤 찬송가를 취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칼빈주의자 조지 윌링드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천사 찬송하기를-Hark! The Herald Angels Sing'을 조금 덜 웨슬리적인 찬송으로 개사했다). 파이퍼가 토머스 치즘의 찬송가에 개혁주의 색조를 입힌 것은 잘못된 행동일까? 아니다. 항상 허용될 일일까?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승운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천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교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선교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회 책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s.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KWMO 한인세계선교교회운동

하나님은 당신을 황금기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제1회 선교박람회 MISSION EXPO

"선교는 기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중한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

INVITATION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30개국 100명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꼭! 오십시오!

대회장: 김정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현영 목사, 노정애 목사, 주혁로 목사
대회고문: 한기홍 목사, 최한영 선교사, 김민희 목사, 이재관 선교사
준비위원장: 김정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현영 목사, 노정애 목사, 주혁로 목사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9AM ~ 7일(수) 6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관: KWMO 한인세계선교교회운동
주최: SON MINISTRIES / GMAN
문의: kwmo4u@gmail.com Tel: 714-350-6957

선교박람회 목적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소중한교회선교운동 (소형+중형+한인교회 선교운동)
황금기선교사(은퇴한분들) 발굴, 동원, 파송
선교사와 성도들의 직접 만남
선교지의 실제 필요한 인력동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할때까지" (스가랴 8:23)

걸어서 사도행전 속으로

30개국, 100명의 선교사, 55개의 선교부스 탐방여행, 직접 현장선교사역 소개를 받으며 선교자유테라피를 받으며 내 인생의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시작합니다.

방문성도들은 선교사들의 55개 선교부스를 방문하여 선교사역기회 정보를 얻고 황금기선교사로, 전문인선교사로 지원하도록 동기부여, 선교장애를 제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 축하공연

11월 5일(월) 7시 은혜한인교회 본당
"샘의 장막", "인애문화연구소"

테라피 체험

- 쌀테라피 (쌀로 그리는 예수님 얼굴)
- 쌀로 예수님 얼굴을 그리며 자신의 속에 있는 문제를 보게합니다.
- 커피점도테라피
- 커피점도로 "심자가 만들기"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 레고테라피
- 선교부스 여행중 레고로 심자가를 만들어보며 선교적 질문을 하게됩니다.

박람회 찬양 전야제 (주일의빛교회) 04일(주일) 오후 4:00 ~ 8:00

아침경건기도회 (세계기도센터) 05(월)~07(수) 오전 8:30 ~ 9:00

KWMO 창립예배 (세계기도센터) 07일(수) 오전 8:30 ~ 12:00

선교포럼 (세계기도센터) 05(월)~07(수) 오전 9:00 ~ 10:20

농축산 포럼 (웨딩채플) 07일(수) 오후 2:00 ~ 6:00

선교박람회 (정원) 05일(월)~06일(화) 오후 1:00 ~ 9:00

소그룹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교회 세운다!

리더십저널, AL 노스포인트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의 교인성장 도모 소개

크리스천의 지속적인 성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도전받고 격려 받을 때 일어난다. 특별히 삶의 도전을 받을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런 도전은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즉 열 맞춰 앉은 사람들이 완전한 익명성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환경으로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애틀랜타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는 8,000 명이 넘는 성인들을 소그룹으로 연결시키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켰다(community groups). 왜냐하면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 됨과 서로 간의 하나 됨을 경험함으로써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관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우리의 전도 전략을 지원한다.

우리의 소그룹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와 '초대' 전도 전략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의 삶에 투자하고 그들을 우리의 적절한 사역 환경으로 초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성인들 대상의 가장 효과적



모일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모일지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한다. 어디에서도 모일 수 있으며, 원한다면 모임 장소를 바꿔가면서 모일 수도 있다.

소그룹은 우리를 더 나은 청지기로 만들어준다.

소그룹 전략은 교회 소유의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만약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됨, 서로간 하나 됨 경험 삶의 변화 체험하는 관계적 공동체 구축

인 환경 가운데 하나는 예배다. 소그룹은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놓치는 일없이 사람들을 예배로 데려올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보다 가정을 통해 연결되는 것에 거부감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까이 삶을 헌신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좋은지 어떤지 여부를 한 번 '맛보고' 싶어 한다.

소그룹은 교회의 리더십과 돌보는 사역을 분산시켜준다.

우리의 소그룹 전략은 교회 내에 단지 적당한 수가 아닌 가능한 많은 목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리더십과 돌보는 책임을 가장 적절한 곳,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돼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그들과 삶을 동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리더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 보다 폭넓은

범위의 영적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각 그룹 내에서 손님 접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돌보는 사역을 조직할 수 있으며,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그룹을 인도할 수 있다.

소그룹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봉사에 참여시킨다.

주일 오전에 하는 일을 실행하려면 많은 인원의 자원 봉사가 필요했다. 교사로부터,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봉사를 제공해야 했는데, 소그룹 전략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줬다. 소그룹 전략을 통해 장년 성도들이 주일 오전에 봉사할지, 주일학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한 부담을 해방시켜 주었다.

소그룹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준다.

우리는 소그룹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정이라는 환경은 교실이라는 딱딱한 환경보다는 확실히 더 따뜻하고 친근했다.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은 때로 다른 프로그램의 방해 받지 않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그룹의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다. 한 사람만 보이지 않더라도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소그룹 시스템에서는 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개인적 스펙을 감안해 스스로 모임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누구도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 구속 받지 않는다. 각 그룹은 스스로 선택한 요일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소그룹은 그들이 언제

가 주일학교 시스템에 의존했다면, 주중 대부분의 시간에 빈 채로 남아 있을 공간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의 소그룹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외에도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주된 방해요소를 제거하며,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소그룹 방식의 특징을 바로 알아, 이 같은 전략을 토대로 사역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사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Churchleaders.com'의 Top 10 Reasons North Point Has Connected Over 72,000* in Groups에 잘 소개돼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시론

복음적인 사람들의 교회



김공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지난 10월 7일이 필자의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8년 간 필자를 도와 함께 동역한 많은 교우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필자가 은퇴하기까지 약 4년 남은 이 즈음에서 필자의 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율법적인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율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복음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투덜대는 모습과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보며 수군거렸다(투덜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매사에 트집을 잡고 투덜거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늘 감사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매사에 투덜대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에 감사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2. 정죄하는 모습과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결코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들인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행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역시 병든 교회입니다. 반면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3. 남을 무시하는 모습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주로 바리새인들) 삭개오를 내려다보며 무시하므로 그가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뽕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그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일을 힘씁니다. 남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남을 무시하고 대접을 받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병들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워 지는 것입니다.

4.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제자들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본인의 죄 때문에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이요 예수님은 긍정적이심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띠게 되니 병들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매사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띠게 되니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5.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가 두 교회를 이어서 부흥회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교회는 밝아 보였습니다. 찬양대원들, 안내하시는 분들, 교역자들은 물론 교인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실내장식과 조명까지도 참 깨끗하고 밝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필자 자신도 밝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다면 율법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운 색깔로 그리고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아주 밝고 깨끗한 색깔로 그려야 맞습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감사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남을 인정해주며 긍정적이고 밝은 교인들로 가득 차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pwkim529@gmail.com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취임감사예배

지난 11년간 순복음 신앙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온 남가주순복음교회가 금번 제2대 담임목사를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과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진유철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일시** : 2018년 10월 28일(주일) 오후 5:00
- **장소** : 남가주순복음교회
- **주소** :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 **연락처** : (714)952-0191(교회), (818)521-9200(셀폰)



이임 박재만 목사



취임 이 일 목사

주관 :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OC지방회

유산 아닌 교회 들여다보는 거울!

(1면에서 계속)

중세 시대에 천주교회 감독들은 설교할 줄 몰랐으며 교구 신부들은 고해성사에 만족했고 형식적으로 라틴어로 된 예배집전에 만족했다. 교회의 의전은 사문화돼 무의미한 반복이었다. 그러한 때 존 녹스와 그의 동료들은 설교 사역을 통해 성경을 생생히 살아 있는 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의 주된 구호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교회 예배와 교육과 제도와 사회 전반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 되었다. 그 말씀에 기초한 스코틀랜드를 재형성하고자 했다.

루터에 의해서 점화된 종교개혁운동은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말씀 사역을 필두로 존 녹스의 성경에 충실한 개혁의 외침이 가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에 눈 뜨게 했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온전히 세우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만이 아니라 녹스에 의해서 주도된 1558년 제네바 영여성경의 출판은 영국의 교회 개혁운동에 기름을 부은 바 됐다. 진리의 능력을 굳게 붙든 많은 설교자들이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구원했다. 목란과 핏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며 천성을 향한 영혼들의 행진의 줄을 이었다.

교회개혁운동은 항상 말씀회복운동으로 특징 지어진다. 수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각성운동 역시 교회개혁운동이요 말씀회복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다시 한 번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단 사역으로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강단이 성경으로 온통 뒤덮이지 아니하고 서는 교회개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의 기준은 어느 특정인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성경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만 바위도 뚫리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배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차원으로 개혁돼야 한다.

예전과 예식이 신앙생활의 주를 이루었던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됐다. 신부들도 예전이나 알뿐 성경에는 전적으로 무지했다. 상당수의 신부들이 마치 복음서가 루터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전 지키기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단순화를 기하면서 신부들의 전횡을 막고 만민제사장직을 가르쳤다. 예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예배의식은 인간이 고안해낸 무엇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대로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쳤다. 그것이 수동적인 의전 행사를 능동적인 예배 참여로 이어지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새롭게 경험하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500년이 지난 지금의 개신교 교회들은 새로운 의전 중심의 예배로 전환돼가고 있다. 예배의 단순화에서 다양한 순서들이 삽입돼 상당히 의식화돼가고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형태가 돼 예배의 대상과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됐다.

예배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각가지 조지들은 예배를 사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우를 범하게 한 것이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영적 생명의 본능이다.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삶 자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신앙고백이요 충성맹세다. 이러한 예배가 지금은 종교의식으로 전락했다. 하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됐다. 예배자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골라가기가 만연해버렸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은 사회 변혁으로 이끌었다.

제도개선과 개혁, 의무교육 실천 및 권력의 이동까지 이끌어낸 엄청난 힘을 드러냈다. 성경이 시민들의 삶과 정부의 정치형태까지 기초가 돼 민주정치에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고 인간의 기본권의 회복과 직업의 귀천이 철폐되고 계급적 구조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유럽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교회 권징은 사랑가운데서 진리를 실현하는 방편이 됐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

나 말씀과 기도로 성결 된 삶을 추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하는 권징은 장로회주의 정치에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성경의 절대권위에서 이탈하면서 성경의 교훈보다 철학과 과학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에서 땅에 대한 집착으로 뒤바뀌어 버린 현실을 환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다. 권징은 말할 것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권에 좌우되고 만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권징조례를 사문화시키지 않고 성경의 효능성인 '책망과 바르게 함'을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올바른 말씀선포 사역의 회복과 예배의 단순화, 정당한 권징 회복은 모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유산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침내 죽은 루터는 쉬게 하자. 그리고 대신 복음에 귀를 기울이자. 그의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일을 제대로 기념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나의 말을 듣고 지켰느냐고 물어보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독일 목회자의 설교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종교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회 칼럼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믿음의 말을 합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곧 닥친 홍해의 위기 앞에서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죠. 물론 벽을 세우신 하나님을 저들도 보았어요. 또 아침에는 물가에 널려 있는 애굽 병사들의 시신들을 보았습니다. 곧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하죠. 하지만 그 찬송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또 며칠 후에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원망합니다. 매일 매일 시달린 구름 기둥과 따뜻한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그렇게 걸어갔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광야를 걷게 하셨나 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셨네요. 예, 결국 그 분이 맞았습니다. 결국 그 교만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변합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 1장, 그들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요단 강을 건너라 하면 발을 내 뻗었고, 입 다물고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돌았습니다. 뭘니까? 예, 저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광야생활을 지나게 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은 평생 우리의 그 태도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 광야에서 우리가 겸손한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원하셔요. 예, 광야에서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될 거야. 잘 되나 봐라~~"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어느 날 당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도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다이 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했던 말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십자가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광야, 믿음의 여정 중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단연코 믿음의 말 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제발, "안 된다, 큰 일 났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안 될 꺼다, 뻘뻘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넉넉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결국 그분이 하실 겁니다." 예, 믿음의 말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이예요.

찬송가 가사를 바꿔 불러도 되나요?

(1면에서 계속)

항상 이로운 일일까? 아니다. 항상 신실한 일일까?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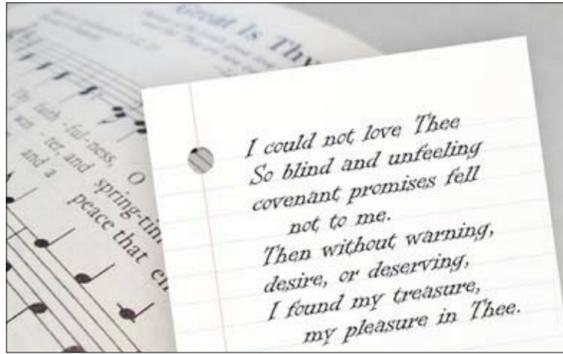
-데이비드 테일러 (DAVID TAYLOR) 풀러신학교 '신학과 문화' 조교수.

"찬송 작사작곡가들이 우리의 교단적, 문화적, 정치적 취향의 세목들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고, 대신에 성경 말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기독교 전통에 우리가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좋은 찬송가는 우리를 이데올로기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카를로스 콜론 (CARLOS COLON) 베일리대학교 '위십과 체류' 감독보조.

"파이퍼는 그 찬송을 맥락에 맞게 올바르게 바꾸었고, 그의 가사가 잘 전달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의 신학적 관점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 자기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문화적으로 타당한 예배 방식인지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핵심을 빚어냈군요.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케니스 L. 윌리스 주니어 (KENNETH L. WALLACE JR.) 로버트 E. 웨버 예배학 연구원박



사과정.

"케냐 민족찬송학자 키플라가트는 사람들은 후렴구를 첨가하거나 자기네 지방의 미적 감각을 반영하는 노래와 춤으로 기존 찬송들을 개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마다 자기네 노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퍼가 새로운 찬송 구절

로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의 새로운 찬송가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울렸으며, 그래서 이 찬송가가 오늘의 세대에게서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했다."

-로빈 P. 해리스 (ROBIN P. HARRIS) Center for Excellence in World Arts 디렉터.

11월 4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4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3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2018년 5월, 해외한인장로회 제43회 총회에서 본 교단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3회 정기 총회 이후, 명성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속히 잘 마무리 되어 우리의 형제교단이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총회의 입장

“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는 최근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동남노회 소속인 명성교회의 세습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통합교단의 헌법조항 및 헌법위원회의 해석, 총회재판국의 판결 등에 대하여는 이미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빚어진바 있고, 교단을 초월한 조직화된 세력의 반대운동과 공동의 결의를 통해 나타난 교회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대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법적적 혹은 사회 통념적 찬반논의는 새삼 거론하지 않되자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국의 개신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본사안에 대하여 온 교단과 노회와 교회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답하길 원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하고, 그 뜻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극단적 불신의

단어들에 쏟아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사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단은 정치와 권정을 위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협력하여 산을 세우고자 하는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법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법을 준수했다고 강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몰아세우는 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합교단은 우리의 자매교단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명성교회 역시 우리 교단소속 교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주시합니다. 세습의 과정에 법적 문제는 피했는지 모르지만 법 취지를 훼손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돌보이든 티끌이든 상대의 단점만을 들춰나가는 자세 보다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시안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대승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통합교단과 명성교회와 슬기롭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주후 2018년 8월 31일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총회장 원중권 목사 서기 이재광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거룩한 세 개의 손가락 (교황 포르모소 Foromoso, 891-896)

로마 성 밖에 제일 규모가 큰 갈리스토 카타콤베 (Gallisto Catacombe)가 있다. 그 카타콤베에는 순교한 여러 감동들이 묻혀 있다. 감동들이 묻혀있는 지하를 통과하여 오른쪽에 산타 체칠리아 (Santa Cecilia)의 조각상이 있다. 그녀를 음악의 수호성인으로 기리고 있다. 그녀는 장님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카타콤베를 수색하는 로마군인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수색하러 올 때마다 쾨는 등잔불을 소매로 품으로 성도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탄로가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목이 잘린 상태였고 비스듬히 엎드려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엎드린 상태로 오른손 손가락 세 개 즉 엄지, 검지, 중지를 약간 내민 형상이었다. 그 형상을 그대로 미국의 조각가가 조각했다고 한다. 그 형상의 하이라이트는 내민 세 개의 손가락에 있다. 손가락 세 개는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한 형상이라고 한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그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있는 셈이다.

때는 900년대 일이다. 역사가들은 10세기를 캄캄한 암흑시대라고 한다. 그 당시 통치하던 왕들은 문

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왕들은 대부분 문맹들이었다. 문맹이었으니 문화에 관심이 없었고 문화에 관심이 없었으니 정육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먹고 방탕하고 전쟁하는 일로 소일하는 것이 당시 통치자들의 일상이었다. 교황청도 별다르지 않았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방탕하였으니 보통 사람들은 그 얼마나 정육을 쫓아 살아갔을 까 싶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환생이 아닌지 모른다.

당시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전 교황 포르모소와 신성로마제국 황제이자 이탈리아 군주인 스폴레토(Spoleto)의 귀도(Guido) 3세는 관계가 아주 나빴다. 그런 차에 교황과 귀도가 죽었다. 그리고 황제의 대권을 이어받은 귀도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는 신인 교황 스테파노에게 죽은 교황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과거 조선 시대, 큰 죄인으로 몰리게 되면 그가 이미 죽었어도 그냥 두지 않았다.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에게 벌을 받게 했는데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했다. 부관참시가 조선에만 있었던 잔인한 형벌로 알았는데 서양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크롬웰이나 존 위클리프도 부관참시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

다. 이런 일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지 모른다.

죽보를 보니 먼 할아버지가 동국통감을 쓴 서거정과 막역한 관계였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비문을 서거정이 썼다. 그런데 그의 후손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조광조의 문하생이었다. 이를 알고 있던 벼슬에서 물러난 장인은 사위를 논산으로 불러들임으로 한양에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적이 논산으로 되어 있으니 역사의 자취란 절기만 하다 싶다.

885년 독일로 가던 중에 사망한 하드리야노 3세의 뒤를 이어 두명의 교황이 일어났다. 그중 한 사람이 111대 교황 포르모소로 그는 자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의 후계자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즉 전임 교황 포르모소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그의 시신을 꺼내 교황의 화려한 제의를 입고 교황의 자리에 앉혀 시노드, 즉 모의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는 위증을 들어야 했고 교황 권에 대한 야망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해야 했다. 즉 다른 교구의 주교 시절에 로마 교구의 주교직을 수락했다는 죄명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교황으로 추대되면 먼저 로마교구의 주교가 되어 라테란 성당으로 가서 주교 좌에 앉았다고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으로 취임한다). 결국 그에게 고대

로마에서처럼 기록말살행이 내려졌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무효화가 되었다.

재판 후에 포르모소 교황의 화려한 제의는 벗겨지고 대신 일반인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교황이 축성할 때 사용하던 세 개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성한 거룩한 손가락이었기에...) 나머지 시체는 테베레 강에 던져 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 라테란 궁은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는데 이를 두고 교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로 시민들은 속덕거리게 되었다.

기록말살행이란 이전 교황이 행한 모든 것이 무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임 교황이 선임한 지도자들에 의해 뽑힌 현재 교황도 무효가 되고 말았다. 그는 교황의 제의를 벗긴 받고 감옥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교살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도도 가장 자비하고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해 담대해야 할 교황이었다. 그런데 권력에 복종하여 가장 잔인한 일에 수종 들어왔던 불행한 교황 스테파노였다. 그는 겨우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황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해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유는 주변 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 때문

이다. 이것은 천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도마의 손가락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4세기 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한 유물을 가져올 때 가져왔다. 그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한 로마의 십자가 성당의 한편에 지금껏 모셔져 있다. 그렇다면 포르모소 교황이 축성할 때 사용하던 손가락 세 개, 즉 교황 스테파노 6세가 잘라낸 손가락은 지금 어느 곳을 헤매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런 희한한 일을 하였기에 이 시대 우리는 스테파노 교황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천년이 더 지난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준다.

우리는 절대로 잔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잘못된 압력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죽음의 장막이 드리우기 전에...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다. 스테파노 교황이 선임 포르모소 교황의 시체에서 잘라낸 손가락 세 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웃의 손가락들을 잘라내고 있을까 싶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고창훈 목사
(울투게더교회)



세상에 문제가 없거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가슴 아프고 힘든 사연 한두 가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힘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보면 가슴 아픈 일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정말 완벽한 여성이 나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럼 '한나'는 어떤 인물인가요?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1

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노른자 땅이라는

거죠. 좋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가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솥의 현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빼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

죠. 거기다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믿음도 좋고, 성전 봉사도 많이 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요? 4절과 5

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특별히 많이 주었던 것을 보면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는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젠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어떤 여자든지 간에,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이상형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이상형과 결혼

도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 많지요, 비옥한 부동산을 갖고 있지요, 가문도 명문 집안이지요, 거기다가 남편은 그렇게 젠틸하지요. '한나는 무슨 복이 저리 많아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나의 결혼생활은 어떠

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내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자식 없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돈이 있다, 부동산도 있다, 가문도 좋다, 좋은 남편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는 건가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슬픔에 묻혀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 말고,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입니다. 그녀는 어떤가요?

(10면으로 계속)

행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을 했다면, 정말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소유한 그런 여자가 아닐까요? '엘가나'는 같은 남자인 제가 봐

해야 하나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하는데 2절을 보면 반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엇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룻기 말미에 '신을 벗어주는 자'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 등장한다. 그는 장래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나 그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감당할 책임인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개 취급받던 이방 여자인 룻까지 사서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물질은 탐이 나지만, 나머지는 택할 수 없다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였다. 게다가 만일 룻과의 혼인을 통해 그에게서 낳은 첫 아들을 말론의 이름으로 하여 그 기업까지 주고 나면, 분명히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므로, 자신이 손해 보지 않겠다는 물질적인 욕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엘리멜렉의 근족은 그의 신을 벗어준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소유권 양도의 공식적인 증거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자초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신명기 25장 9-10절을 보면 형제의 기업을 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부르도록 칭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 규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을 벗은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양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와 부끄러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물질에 대한 관점이 신앙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성장에 해로운 요소가 됨을 보게 된다. 특별히 '내가 피땀 흘린 돈으로 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불행한 생각이 신앙을 망치는 경우를 본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사로운 주인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가,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조명아래서, 말씀순종의 바탕위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람 앞에 '신 벗기운 자'라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의무 규례를 거부하면서까지 욕심을 내는 것들이 영원할 줄로 생각했을 것이다. 물질부분에서 자유하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의 유한함과 그 유한한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인생은 무엇인가? 다향 같은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나그네, 우거하는 자,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고, 잠시 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hyunlee@gmail.com

Q: 과거 핍박받던 1, 2세기 초대교회의 세례와 예배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처럼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로교회에서는 뿌리는 세례를 하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한 예가 있는지요? 우리의 세례와 예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한국에서 이정심

A: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초대교회 시대의 흔적을 담은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두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교훈(The teaching of the Lord through the twelve apostles to the Gentiles)이며 이 책은 간단하게 디다케(Didache)라고 불리어졌는데 헬라어로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에는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도 할 수 있으며 찬물에서 할 수 없거든 따뜻한 물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러한 물을 충분히

초대교회 때도 뿌리는 세례 있어...예배도 유사하나 성찬은 어떤

구할 수 없거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물을 붓도록 한다. 그러나 세례받기 전에 세례 주는 자와 세례 받는 자가 하루 혹은 이틀간을 반드시 금식한다"(p. 24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아닌 뿌리는 세례도 초대교회는 인정했으며 오늘날의 세례와 다른 점은 세례 받는 자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F. F Bruce가 쓴 "The Spreading Flame"란 책을 보면 금식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외식자들과 같이 하지 말지어다. 그대들의 금식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반드시 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핍박받던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는 주로 새벽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저스틴(Justin Apol.1,Page.61)을 보면 매주 정기적으로 갖는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는 도시들이나 변경에 거주하는 이들이 한데 모이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저술을 낭독하게 된다. 낭독 후에는 대표자가 우리들에게 설교로서 이러한 선행들을 실제로 생활 가운데 실천할 것을 권면한다. 그 후 우리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그 후에 떡과 물 섞은 포도주를 내오게 되는데, 대표자가 같은 방법으로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아멘으로 찬동의 뜻을 표시하게 된다. 그 후 각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배하며... 집사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따로 구별해둔다. 그리고 생활이 부유하거나 또는 원하는 자들은 각자가 정성껏 헌금을 하는데, 이 때 거두어진 헌금은 대표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고아와 과부들,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이들,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을 돌보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의 예배와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대교회는 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개혁자 쾰링의 영향을 받아 성찬식이 일년에 4번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찬 두 기도의 초대교회의 예배를 볼 때 현대교회는 좀 더 성찬식을 자주 가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며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과 공동체를 향한 사명과 책임

- 물질과 신앙, 사명과 축복

심에 신을 벗어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책임

그의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물질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친족의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 이것이 '기업 무르기'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당신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자비를 통해 보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은 자기의 손해와 이익만을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그의 단순한 욕심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빠져버린 고장난 계산기는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축복을 계산

호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을 벗는 이유는 무엇인가?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도 달게 받겠다는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

물질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오래 동안 재물에 붙은 마음을 떼지 못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해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본다. 많은 경우, '내가 탐 흘려 모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철저히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본다. 이러한 생각들이 형제간, 부모 자식 간,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도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경우를 발생시키게 된다.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면 물질문제가 제일 크다. 돈이 걸리면 이로 인해 사람들끼리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별것 아닌 것같이 느껴지는

의식이 늘 존재한다. 늘 탐 흘리며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야 하고 물질을 모아야 하지만, '피 탐 흘려 번 돈'이라는 의식에 앞서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드러내 헌신한다는 것이다. 즉, '피 탐 흘려 번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주시고, 직장주시고, 일할 환경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물질과 욕심에서 자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신을 벗어버린 자처럼 물질의 손해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없

갈 인생이라고 한다. 아침안개와 같아서 잠시 머무는 곳이 이 땅이라고 할 때, 인생이 재물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중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물질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 경고하신다. 시편 39장 4-6절에서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bustle)하며 누가 취할지 모르는 재물을 쌓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물질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해서는 바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의 존귀함의 포기

엘리멜렉의 근족이 신을 벗음으로 포기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에 대한 포기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1면으로 계속)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고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은혜받는 습관 데비드 매티스/생명의말씀사	아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문서출판/류태영 외 8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살피심 김양재/두란노	페이버 하형택/청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넬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사 562-865-4949, 865-1919 도르가서점 714-636-7430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산지에 거주하는 소수종족이다. 이들은 8개의 부족들 중 하나이자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크(Aimaq)어라고 불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페르시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어(turkic)의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면서 흩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반유목민적(semi-nomadic)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다. 이들은 무역통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크족들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 침공 시에 또한 잇따른 내전에서 아주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안전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유목민이다. 많은 아이마크-하자라 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부로 전업했다. 이들은 원시적인 팥이와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화에 있어서 부업으로 여겨지며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가축의 양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와 우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는 그들의 가축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죽은 또한 천막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마을의 돌집에서 거주한다. 이들의 가축 떼를 계곡에 남겨 놓고 모아 놓은

곡식을 먹인다. 봄과 여름에 이들은 산지를 다니면서 천막에서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는 가장적(patriarchal, male-dominated, 남성중심)의이면서 부계(patrilinal, tracing ancestral descent through the males, 남성을 통해 조상의 가계가 이어지는)사회이다. 이들의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로 이뤄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남편가족의 일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축 떼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업무는 카펫을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전수되

는 그들만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카펫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카펫은 가족, 현금과 함께 결혼의 지불금(혹은 지참금)으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적이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나피 분파에 속한다. 이들의 강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야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혈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와 그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권침해로 분투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중단됐다. 전 국토가 소련과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모든 마을은 파괴됐고 식량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안전한 식수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 현재 아이마크-하자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진 피터슨 목사 별세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길 가는 순례길'을 마쳤다. 미국 크리스챤투데이에는 피터슨 목사가 22일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85세. 피터슨 목사는 지난주부터 심부전과 치매로 인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슨 목사의 가족들은 이날 부고를 알리면서 그의 임종 순교를 전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의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항해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 말은 오순절 신앙 배경을 가진 그의 한두 마디의 방언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가자(Let's go)'도 있었다. 얼굴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축복 속에 기쁨을 남겼다. 유한한 육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대해 무슨 말을 한다면 '거룩 거룩 거룩'일 것이다."

그의 아들인 에릭 피터슨은 지난주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묘사하면서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마지막 순례를 위해 병원의 권고에 따라 호스피스 처방을 결정했다.

피터슨 목사는 1932년 위싱턴주 이스트 스탠우드에서 태어나 몬태나주 켈리시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년 시절 오순절교회를 다녔고 1950년 시애틀 퍼시픽대에 입학해 철학(BA)을 공부했다. 졸업 후엔 뉴욕신학교에서 신학(STB)을 공부했다.

신학교 졸업 후 존스 홉킨스대에서 쉐어 연구로 석사학위(MA)를 받았으며 1958년 미국장로교단(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9년 뉴욕신학교에서 성경 원어와 성경을 가르쳤고 뉴욕시 화이트플레인스장로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일했다. 이 시기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깨달아 1962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메릴랜드주 작은 마을인 벨 에어에서 '그리스도우리왕장로교회'를 개척해 29년간 사역했다. 93년부터 2003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는 일상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비롯해 '일상, 부활을 살다' '한 길 가는 순례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의 영성 시리즈' '유진 피터슨 목회 멘토링 시리즈' 등 30여권이 있다.

별세하기 전까지 그는 아내인 켄 피터슨 사모와 그의 고향인 몬태나주 켈리시펠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살았다. 가족들은 장례식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켈리시펠의 제일장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학교서 기도 금지" 무신론단체에 맞선...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영상으로 눈길을 끌었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 풋볼팀 소속 목회자 코치가 무신론단체의 비판에 시달린 끝에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학생들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코치 없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은 최근 조지아 주 소재 도슨 카운티 고등학교(Dawson County High School)의 풋볼팀에서 인성 코치(character coach)를 맡았던 러셀 데이비스 목사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달 7일 데이비스 목사의 기도 영상이 한 학부모의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목사가 풋볼팀 라커룸에서 웨스트 홀 스프라탄스 팀과 경기에 나서는 도슨 카운티 타이거스 선수들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라

커툰에선 지역 어린이 풋볼팀 선수 여러 명도 함께 기도를 드렸다.

에토와 교회(Etowah Church)에서 목회를 하는 데이비스 목사는 "오늘 밤 너희들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 같은 경기장에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사명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상은 큰 호응을 얻으며 인터넷 곳곳으로 퍼졌다. 그제 화근이었다. 위스콘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이 지난달 21일 영상 속 데이비스 목사의 기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FFRF는 학교에 보낸 문서를 통해 데이비스 목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데이비스 목사는 물론 그 어떤 누구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FFRF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학교측 변호사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학교 직원은 물론 어떤 자원 봉사자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기도하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측 결정에 따라 데이비스 목사는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됐다.

기도를 인도하는 코치는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기도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슨 카운티 지역지 도슨뉴스닷컴에 따르면 데이비스 목사가 기도할 수 없게 된 직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를 하고 자신들의 신앙심을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도슨 카운티 고등학교 풋볼팀은 데이비스 목사의 기도 없이 스스로 기도를 한 뒤 지역 라이벌 럼프킨 카운티 고등학교 풋볼팀과의 경기에 출전해 36대 3의 대승을 거뒀다.

FFRF는 미국 내 공공장소에서 거의 모든 기독교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아이덜와이드 초등학교의 기도문성경 배포를 저지했고, 12월에는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대학 콘코르 셉터의 손님 접대용 객석에 마련된 기도문성경을 모두 없애라고 요구했다. 2014년 1월에는 플로리다 주 파이널러스파크 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청 회의실에 전시된 성경을 치우라고 경고했다.

캔자스 주 그레이트 밴드 고등학교(Great Bend High School) 교장은 지난 6월 졸업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는 축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리노이 주 한 고등학교에서는 올 초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금지했고, 오클라호마 교육 당국은 역시 올 초 목사가 풋볼팀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막았다.

오하이오 주 벨로이트의 웨스트브랜치고등학교(West Branch High School) 학생과 주민들은 지난 2월 스포츠 경기 전 기도를 금지하라는 요구에 맞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미네소타 주 동부 도시 미네톤카에 있는 나샤 시콜라(Nasha Shkola)의 스쿨 버스를 매일 2시간씩 몰던 조지 나다니엘(George Nathaniel) 목사는 학생들의 기도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됐다.

차별금지법과 종교·표현의 자유 충돌

크리스천 웨딩포토 영상제작자 부부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미네소타 법이 그들에게 부여된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텔레스콧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하는 칼과 앤젤 라센(Angel & Carl Larsen)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미네소타 인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성별결혼을 위한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미네소타주의 '차별금지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절차적 정의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존 툴하임(John Tunheim)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백인 전용' 표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에 항소했고 미네소타 법원은 몇 달 안에 영상제작자들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미네소타 주 인권위원회 케빈 린지는 "이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적 신자들 그 법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 뉴스 지사인 KMSP에 따르면 그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할 때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센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망원경처럼 예수를 돋보이게 한다. 따라서 우리 사업의 이름이 텔레스콧 미디어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이 지금 결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센을 대리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수석 변호인인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는 "부부가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최고 2만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를 보거나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결혼과 관련하여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신념을 해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홍보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 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월 테데스코 변호사는 예술 시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행동으로 인해 주 정부가 벌금이나 구공과 같은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양심의 중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 결혼에 대한 관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라센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자유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바꾸기 위해 8번에 걸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생시 생물학적 성으로 제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생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에 따라 성을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보건복지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했으며 이 메모에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 생물학적 기초 위에서 성별에 대한 명시적이고 일관된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에 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을 펼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샀다.

성별 정의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결정은 앞으로 미국 주요 정부 기관의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방법 등을 동원해 성별을 결정할 약 140만명의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노숙자 변장 목회자가 올린 감동 영상

미국의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노숙자로 몰래 변장해 촬영한 실험 영상이 인터넷에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남루한 차림을 한 자신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 준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심을 확인한 목사는 '편견 없는 사랑이야말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Harvest Bible Church)'라는 교회를 이끄는 제임스 맥도널드

(James MacDonald) 목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숙자로 변장해 촬영한 실험 영상 한 편을 올렸다.



시카고랜드 지역에 7개의 교회 캠퍼스를 개척한 맥도널드 목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한 TV프로그램과 '워크인 더 워드(Walk in the Word)'라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는 유명 목회자이다.

맥도널드 목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주일마다 두 곳의 캠퍼스 앞에서 노숙자 차림을 한 채 구걸에 나섰다. 성도들은 남루한 옷차림과 덥수룩한 수염, 가발 등으로 변장한 목사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상에는 맥도널드 목사가 노숙자 차림 그대로 주일 예배 단상에 오른 뒤 가발과 가짜 턱수염을 벗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성도들은 처음에는 노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노숙자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이어진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려?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려?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누가복음 6:32-33)

맥도널드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사람들"이라며 "많은 성도들이 노숙자인 제게 먹을 것과 돈을 건넸고 일부는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대함 때문에 수염 속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먹을 것을 들고 온 두 명의 남성은 "아침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커피도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로 이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디. 이 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린 아이를 안은 또 다른 남성은 노숙자에게 돈을 건네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이라고 말했고, 한 여성은 "주님, 제가 이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세요"라고 했다.

어린 아이 세 명과 함께 노숙자 결로 온 여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죠.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자 곁에 있던 여자 아이는 "원하시면 저희랑 함께 들어가세요"라고 거들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마 6:45).

한 중년의 남성은 노숙자의 건강이 걱정되는 듯 "오늘 밤 괜찮으시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희랑 함께 앉으실래요?"라고 권유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 성도는 생수병을 곁에 놓고 "물보다 더 귀중한 걸 가져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이라며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건네기도 했다.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한 남성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 세계 친구를 보내주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분과 오늘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길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심을 영상으로 보여준 맥도널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똑같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편견 없이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편견이 없다"면서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편견을 갖지 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설교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다.(마25:40).

맥도널드 목사가 올린 영상은 21일 현재 좋아요 1만4000여개, 공유 3만1400여개, 댓글 1430 여개 등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성

과연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은 중세 교회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단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이 시대의 보편적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앓고 있다. 근대 서구 사회의 전통적 개념과 역행하는 현상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사상은 이성의 빛으로 여겨졌다. 무지몽매함과 불합리한 전통, 그리고 종교적 광신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 중심에는 이성이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미성숙을 깨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몽 사상가들의 사고는 일부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를 넘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철학과 과학의 영역을 넘어 문학과 예술을 통해 대중적인 사상체계를 갖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계몽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기독교적인 관을 포기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판단기준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부각되었다. 너도 나도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합리적인 세상, 항상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출발된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사와 교회사는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세속적 세계관이 가져온 허무주의와 방종은, '이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하였다. 특히 교회에서 '이성' 또는 '이성적'이란 단어가 신앙을 거부하는 '자율' 또는 '신앙'과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캔터베리의 안셈

중세 시대는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황의 권력 투쟁, 십자군 운동, 그리고 수도원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신앙의 힘과 인간의 부패를 실감한 것이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자연적으로 중세 교회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여유가 없었다. 사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본분을 잃은 상태에서 신학의 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인 알러진 캔터베리의 안셈(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이 등장하면서 중세 교회에 새로운 신학적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안셈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접경지역인 북 이탈리아의 아오스타에서 태어났다. 상류층에 속한 가문 출신으로, 부모들은 그가 정치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집을 떠난 뒤 베네딕도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가 어려서부터 소망했던 일을 성년기가 되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함께 깊은 신앙심을 지녔던 안셈을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당시 고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재였다. 특

히 라틴어 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063년 그가 속해있던 수도원의 원장이 대수도원장으로 승진하자, 그의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1078년 그가 속했던 대수도원의 원장이 사망하자, 안셈이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1089년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사망하자, 영국 성직자들을 그를 안셈에게 그 자리를 계승하기를 요청하였

의 시녀라는 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직 신앙적인 것이 진리라는 판단에는, 이성 자체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며, 믿음을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안셈은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성이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확신이 중세 정신사에 커다

신앙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이성을 사용하여 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신앙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믿기 위해서 안다!'라는 어거스틴을 넘어,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외친 것이다.

'프로솔로기온'은 본체론적 변증이었다. 대전제는 이렇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술양식과 공통적으로 인해 가능한 논증들과 명확한 설명과 이성적인 사유의 필연성을 짚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진리의 명백성을 드러낸다."

이 한 문장이 안셈의 모든 생각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이성이란 통찰 도구를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려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성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성을 신앙으로부터, 또는 신앙을 이성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즉 그는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이성을 사용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선 자로서, 이성의 변증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지녔음에 분명하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신앙을 거부할까? 그들의 우둔함 때문이다. 이미 그들 안에 절대적인 지식 또는 신지식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자들의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둔함으로 인해 충분한 이성적 사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안셈이 이해한 신앙은 이성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신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길

안셈이 이해한 이성의 역할은, 절대로 이성 스스로 신앙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이성을 통해 어떻게 신앙을 얻을 수 있을까?

안셈은 '명상'이란 개념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상'과 달리,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이성이란 개체를 통해 배우고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반복하면서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셈이 저술한 '왜 신이 인간이 되었는가?'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의 형식을 선택하였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플라톤의 대화록과 유사하다. 그 핵심은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 자체가 아니다. '명상'을 통하여 그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안셈은 우리에게 신앙이 없는 이성을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성으로만 신앙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성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한다. 신앙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계몽주의는 기독교적 관 포기, 합리성 중시 세속판단기준 사물 관찰 스콜라철학의 아버지 안셈 등장으로 중세교회에 새 신학적 열풍 불어

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안셈은 영국 국왕 윌리엄 루퍼스(William Rufus)와의 갈등으로 인해 4년 뒤에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란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는 이성에 대한 개념 정리나 신앙과의 연관성을 서술하면서, 결코 신앙의 뿌리를 떠나 생명력이 없는 이성을 제안한 적이 없다.

그는 근본적으로 '믿기 위해서 안다' 라는 어거스틴의 명제를 수용하였다. 그에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대한 소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제한 받지 않는 분, 즉 반드시 우리의 정신 밖에도 존재하는 분이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의 결론은 자명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는 완전한 분이시다.

"신앙 보조수단에 불과한 이성이 신앙과 대치되는 것 아니다" '믿기 위해서 안다' 어거스틴 명제 수용 '알기위해 믿는다' 까지

안셈은 신앙과 이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남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신학적 고민은 그 당시 교회에게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11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신앙의 권위가 정신적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신앙은 신앙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믿는다는 것은 주어진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이성의 역할은 교회의 권위에 종속적인 것이었다.

안셈 이전엔 이성의 역할은 신앙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성 자체로 주체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중세 교회 내에서 '이성은 신학

이성을 통한 인식 자체가 자동적으로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단지 이성이 지닌 본성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셈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프로솔로기온(대어록, Proslotion)'으로, 원제는 '지성을 찾는 신앙'이다. 여기서 그는 이성이란 방법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믿기 위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기 위하여 믿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알 수도 없다." 안셈에게 이성과

이와 같이 안셈은 이성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적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이성과 신앙

안셈의 고민은, 이성에게 계속 신앙의 시녀 역할을 맡겨져 하는 것이었다. 그의 또 다른 대작인 '모놀로기온(독어록, Monologion)'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증명방식에는 전혀 신앙적인 서적의 권위에 의존함이 없이, 개별적인 연구에 의해서 결론을 이끌려고 하며, 분명한 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만민복음화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사별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g.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찬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30 토요영양교과: 오전 9:00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m.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주 일 학 교: 오전 9:2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김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없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주 일 2부: 오전 9:45 주 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45 새 생 기 도 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금요예배: 오후 5:0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도성장회: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장부: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성도성장회: 오전 10:00 사별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745-9191(CH), 사별(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 생 기 도 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장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새 생 기 도 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장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장회: 오전 3:0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30(월-토) 성도성장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순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5:30(월-토) www.conerstonech.com / e-mail: pastor@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노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성경도 신앙(65)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3. 국가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로마서 13장 1-7절 주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정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긴급하고 관련 있는 문제들을 위한 표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곱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각사람”은 이라고 말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국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만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한다. 국가와 정치에 대한 로마서 13장 1-7절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언급들을 살펴보자.

1) 다른 성경구절의 지지
먼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권세들(power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위에 있는 권세들(powers)’로 번역된 헬라어는 ‘권위자들(authorities)’란 뜻이다. 이 권세들은 우리를 다스릴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을 말한다. 이에 관해,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선한 권세에만 복종하고 악한 권세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먼저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에 대한 다른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알아보자. 디도서 3장 1절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복수로 ‘권세들’이란 말을 쓰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authorities)와 능력(powers)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으로써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을 말씀한다.

에베소서 1장 20-21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에 이니라 모든 세상에 이니라 모든 이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치를 비롯한 국가들 위에 왕 노릇 하심을 말씀한다.

3장 10절에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통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심으로

교회와 국가의 신비한 관계를 보여준다.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하심으로 정치의 배후에 있는 존재와의 대립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하심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권세(자)에게 굴복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 서로 주장 말고 형제사랑으로 존경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2장 10절에서 “너희도 그(그리스도) 안에서 존대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통치자들의 머리되심을 말씀하며 2장 15절도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폐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말씀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권세들’이란 말이 복수로 쓰여져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상국가와 권세나 정부들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2) ‘권세’와 ‘복종’의 의미

로마서 13장의 ‘권세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사상은 권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물론 세상 권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틀러나 나치와 같은 타인의 사람들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그들 속에

일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을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지상의 정부들과 권위자들을 다루고 있다.

사도는 1절에서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 씀한다. 여기 ‘복종하라’는 어근은 군사적인 단어로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그 명령에 굴복하려고 대열을 이루고 있는 군사들을 지시하는 단어다. 그러면 바울이 이 권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가?

(가)여기 ‘복종하다’는 말이 순종하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헬라 원어에 “순종하다”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도 있다. 그 세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 보편적으로 순종의 개념을 지시하고 싶을 때 쓰인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세 단어 중 하나도 여기서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단어가 신약에 13회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 따라서 순종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주도적인 개념은 순종이

“복종하다”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이것이 권세와 국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나와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아무 일든지 다함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복종하라’는 본문의 누앙스이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에서 볼 때,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과 그와 같은 식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순종을 말씀한다. 이것이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지금 맹목적인 순

종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 권세자들이 무엇인지 “하리”는 식으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무조건적 방식으로, 무비판적인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하게 사용된 에베소서 5장 21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더욱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적극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정하신 바라(1절).” 바울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때는 물론 로마제국의 정부를 생각하고 말씀했다. 그것은 법과 질서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권세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을 정하셨다’고 말씀한다. 이 권세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 지위를 유지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목적있는 삶

한 달 전에 학교 커리큘럼의 하나인 학생 수련회가 샌디에고 부근 오션사이드에서 1박2일 동안 있었다. 주로 신입생을 위한 클래스여서 일정이 짝 짜여 있었지만 우리가 머물던 호텔에서 한 블럭만 걸어가면 바로 바다인지라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교각을 따라 걷다보니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 재미로 잡는 것이든 무서운 것이든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는 것은 바셋 안에 손바닥만한 길이의 고등어들이 몇 마리씩 들어 있었다.

서서히 호텔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니 세 명의 남자들이 몇 개 걸여 놓은 낚시대 중 하나로 흥분해서 물러들고 있었다. 흥분어가 물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들이 낚시대에 장치해 놓은 소리가 들리고 무슨 종류의 물고기인지 아는 것 같았다. 어떤 생선이 올라올지 궁금해서 나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번의 당김질로 씨름을 한 후에 물고기는 도망을 갔고 끌어올린 낚시대에는 미끼로 쓴 큰 생선 머리만 대롱 대롱 달려있었다.

그런데 전문 낚시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쓴 미끼는 다른 사람들의 사용하던 미끼와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지렁이, 새우들을 미끼로 고등어 고등어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생선 머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쩌다 걸려 올라온 작은 고등어들은 아예 바닥에 넣어놓은 채 팽개치고 놓아버리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질구레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 성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큰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다.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그 책을 토대로 한 세미나가 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책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지만 무슨 무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쫓아가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물론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우리 자신을 몰아대는 삶을 산다면 잘못된 일일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자도 평신도도 주님을 위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 “왜?”라는 질문이 없이는 열심은 자칫하면 바쁜 게 움직이는 활동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적을 생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듣는 TED를 통해 유명해진 Simon Sinek은 Golden Circle이라는 강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우수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에 집중할 때 그들은 “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Simon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바로 그 내용이 우리 크리스천이 사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질한 고등어 새끼를 잡는다고 열중할 때 우리는 큰 물고기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내가 너무 아끼는 찬양곡 “Behold, then sings my soul”의 한 구절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주님 곁에서 서면 마치 태양 옆의 촛불 같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목적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lpyun@apu.edu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3>뉴욕갯세미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sp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배: 오전 0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연구: 오후 08:00 금요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nyamc.org</p>				
<h3>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후 08:45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718)883-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4:00(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준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ctok.org</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주비성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분</p> <p>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새벽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org</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에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목요일예배(오후 7:30)</p> <p>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에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목요일예배(오후 7:30)</p> <p>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I-SA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은사)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멕시코 번역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기도회 생략)</p> <p>Tel: (52)333-3507-4111 E-mail: hanimkr@hanimkr.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불같은 연단의 축복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신언자에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회사가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회사발전을 위해 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어렵게 들어온 집사님 한분이 고민하다가 사표 별각을 하고 당직실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승으로 그 집사님의 이름이 불려져도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고사가 끝난 후 회장에게 불려졌을 때, 그 집사님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사표를 써서 갔지만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다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던데 원 부장은 왜 절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난 원 부장처럼 확실한 사람이 좋아”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중요한 공장에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금과 순금은 500도 되는 불 속에서 정체가 드러나듯이, 진짜신자와 가짜신자는 고난과 시련 앞에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은을, 도가니 불에서 금을 단련하시듯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유약한 병아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강한 독수리 크리스천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연

단하여 강인한 신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모두 머리에 돌을 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강 한가운데 가면 물살이 어찌나 센지 돌을 지고 가지 아니하면 떠내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어깨에 매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탐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이르러 탐비는 제자 둘에게 각각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탐비의 발밑에 내동댕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썼기 때문이리구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탐비는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러자 “설마 무게가 똑 같았는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지고 갔고, 저만 찢절 매었다는 것입니까?” 탐비가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어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갔

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지고갈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4절에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에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영광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 섞인 우리바다를 통과한 성도, 연단을 거치고 성숙한 성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정글과 오지에서 고생하면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 당하는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의 일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에 남다른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12제자는 가롯 유다 빼고는 모두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산 순교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사신 교회를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인해 감사드리는 성도되시길 바랍니다.

20주년 맞은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KIMNET 11차 선교전략 기도성회 함께 개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제 4회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대회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 또 제 3회 선교사 집중훈련도 가졌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전문인선교대회는 ‘지역교회를 통한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자’는 주제로 KIMNET(Kingdom Inter-Mission Network)의 11차 열방을 품는 선교전략 기도성회와 함께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C국, Ky국, E국, T국 등 보안지역을 비롯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일본, 한국, 영국, 웨일즈, 케냐, 크로아티아, 북미주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사역하는 PGM 선교사들과 KIMNET 소속 목회자 및 선교사 총 237명이 참석했다. 대회 첫날인 11일 저녁 집회에는 한기홍 목사(KIMNET이사장, LA 은혜한인교회 담임)가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역하자’, 12일에는 임원수 목사(KIMNET 공동회장,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하나님의 꿈’, 마지막 13일에는 김용훈 목사(버지니아 열린문교회 담임)가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매 저녁집회에는 400명 이상의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이 참석, 주



파송예배에서 호성기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삶의 현장에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PGM 국제대표인 호성기 목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PGM의 제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를 통해 PGM 선교사님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힘든 사역으로부터 회복되며, 새롭게 비전을 얻는 시간을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10월 10일 오전부터 10월 14일까지는 40여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참여해 오전부터 PGM 핵심 가치 및 선교현황 및 전략, 성경에서의 핏신도, 전문인 리더십 등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강의, 현장실습(All nation church, Antioch city

church, 타문화 전도)을 교육 받았다. 10월 14일 주일예배에서는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8명이 수료하고, 25 Unit 36명이 PGM 전문인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PGM은 199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깨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에서 훈련 받고 양육 받아 은사를 전문적으로 개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역교회에 유익을 미치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미국 연방/주정부가 인정하는 초교파 비영리선교단체이며 현재 30개국에 156 Unit 27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www.pgmusa.org). (기사제공: PGM)



제14회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석년 오성택 목사 명예박사 받아

제 14회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 성료

제 14회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21일 오후 5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비전나눔, 3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4부 식사 및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광수 목사(이사장) 사회와 유니온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종호 목사(LA 지방회장)가 기도했으며 권영태 장로(이사, 유니온교회)가 성경봉독 후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

장, 시온성경교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히4: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장근 목사(명예총장)가 축도했다. 이상복 목사(준비위원장) 사회로 열린 2부 비전 나눔은 류종길 박사(총장)가 인사했으며 윤성원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와 노세영 총장(서울신학대학교)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권다윗 목사(이귀라 목사)가 동문 간증을 했으며 조종근 목사(이사, 사우스메이선교회)가 후원안내 및 약정을 위한 기도를

했다. 또 소선희 전도사(성문교회)와 미성대 동문합창단이 특별 찬양했으며 류종길 총장이 유니온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윤석길 교수(교무처장) 사회로 시작된 3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김수정 교수(교무부처장)가 학위기 낭독했으며 김석년 목사(서초성결교회)와 오성택 목사(남전주성결교회)에게 학위수여를 했으며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석년 박사와 오성택 박사가 답사했다. 김석년 박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사들이 죽지않아서 오게 된 것”이라 말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명예박사 학위는 명예롭게 예수로 흠뻑이처럼 죽는 자라는 의미로 받은 것이다. 날마다 죽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박사는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역하게 하시고 명예박사 수여받은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다문 화사회인 미국사회에서 4중복음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미성대의 동문이 된 것 감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제작 기독교영화, 주류 영화제서 연이어 수상

‘3일 주야’, LA독립영화제 이어 글렌데일인터내셔널 영화제서 감독상 수상

미주 한인이 제작한 기독교 영화 ‘3일 주야(Three days and three nights)’가 LA 독립 영화제에 이어 글렌데일 인터내셔널 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수상했다. 지난 주말 레벌 극장에서 막을 내린 글렌데일 영화제는 전 세계 100여 작품이



글렌데일 인터내셔널 영화제에서 박 요스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참가하는 국제 영화제다. ‘오 마이 베이비’로 알려진 리키

김의 부인, 류승주씨와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중인 아담 정씨가 주연했다. 이 영화는 한 가정의 아빠가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따뜻하고 유머 있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감독상을 수상한 박요스 감독은 기독교 영화가 이례적으로 일반 영화제에서 관심을 얻게 돼 기쁘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화 상영시간은 20분이며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영화의 무료 상영을 원하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yospark@gmail.com



제6회 남가주대광OB 코랄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경천애인의 열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제6회 남가주대광OB 코랄 정기연주회 성황

제 6회 남가주대광OB 코랄(단장 한영, 지휘 강민석) 정기연주회가 남가주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동문회장 정호승) 주최로 20일 오후 5시30분 바이올라대학교 크로웰 랜싱 리사이틀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영 단장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본교 교훈인 경천애인의 열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열매

를 맺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연주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My Lord, What a Morning’, ‘Swing Down, Chariot’,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등 성가곡과 ‘광화문연가’, ‘깊은 밤을 날아서’ 등 가요를 불렀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세리토스 MUN 컨퍼런스에서 6개의 상 수상했다

한미연합회 학생들 6개상 수상

세리토스 MUN 컨퍼런스...총 700명 참가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세리토스 MUN 컨퍼런스에서 6개의 상 수상했다

한미연합회(KAC) 모의유엔(MUN) 학생들이 지난 13일 세리토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첫해 회의에 참석했다. 약 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MUN 컨퍼런스에서 KAC MUN은 총 6개의 우수상을 받았다. 이 상은 특정 세계 문제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우수한 외교 활동을 수행한 소수의 학생에게 주어졌다. 아담정 MUN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우리 MUN 학생들은 세리토스 MUN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연구, 대중 연설 및 토론 기술에 열

심히 노력하고 있다. 즉흥적인 대중 연설, 국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회의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본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1980년대부터 젊은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한미연합회는 올해 MUN 학생들이 이뤄낸 성과를 축하하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동부교계 기사판



심령이거난교회 설립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심령이거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 설립 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11월 4일(주) 오후 3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장로장립지는 이근우, 박권진, 한성수 씨. 동 교회는 최근 생명샘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장소는 243-01 노던블러바드, 더글라스튼.
 ▲문의: (917)386-8852

뉴욕농아인교회 10주년 감사 및 집사안수 예배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 10주년 감사 및 집사안수 예배가 10월 28일(주) 오후 5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991-0703

뉴욕주님교회 설립10주년 말씀잔치
 뉴욕주님교회(담임 장규준 목사)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말씀 사경회를 갖는다. 11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저녁 8시, 4일(주)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강사는 한어권-오선일/조희창/이철희/장규준/김재권 목사, 영어권-이영우/성승욱(Danny)/Bryant Nam.
 ▲문의: (646)266-0039(KM 장규준 목사), (917)379-3211(EM Danny 전도사)

뉴욕크리스천교opal 제 3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리스천교opal 제 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8일(주) 저녁 6시 뉴욕순복음플러스교회에서 열린다. 소프라노 신혜리, 장지현, 테너 공경민 씨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347)860-0165, (646)915-6034

월드밀알찬양대축제 후원의 밤
 월드밀알찬양대축제 후원의 밤이 10월 30일(화)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일인당 100달러. 월드밀알선교협창단이 주최하는 11월 4일 카네기홀 연주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만찬과 찬양이 있다. 아멘넷이 후원한다.
 ▲문의: (718)460-5108

제 5회 윤세웅 박사의 신학과 과학 세미나
 제 5회 윤세웅 박사의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10월 29일(월) 오후 5시 부터 8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강사 윤세웅 박사는 의학박사이며 신학박사로 현재 뉴욕기독교방송(KCBN)의 사장과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강의주제는 1)진화론의 의학적 오류 2)의학적으로 본 창세기 홍수사건 3)인간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고찰 등이다. 주최측은 예약을 바라고 있다.
 ▲문의: (718)463-1700

제 1회 밴드 경연 페스티벌
 뉴저지지역 교회 연합운동인 '러브뉴저지'가 주최하는 제 1회 밴드 경연 페스티벌이 11월 11일(주) 오후 5시 누리홀에서 열린다. 교회 찬양팀 뿐 아니라 일반 3인조 이상 밴드가 참가할 수 있으며 자유곡 1곡과 지정곡(살아계신 주)을 밴드 특성을 살려 연곡 연주하고 부르면 된다. 금상 1000달러, 은상 500달러, 동상 300달러의 상금도 수여한다. 참가 신청은 10월31일까지 이메일(lovenj14@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www.lovenj14.org

ATS 한인동문회 정기총회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한인동문회(회장 오바울 목사) 정기총회가 11월 5일(월) 오후 5시 뉴욕주는교회(담임 김연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보고 및 임원 선출이 있게 된다.
 ▲문의: (201)618-1315 오바울 회장, (917)294-2097 민병욱 총무

“Fearless” 주제, 강사 리사 송 전도사 2018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성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가 주관하는 2018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프라미스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첫날 480명, 둘째 날 270명이 참석해 예년보다 많은 수가 참석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Fearless”(1 John 4) 주제로 열린 대회의 강사는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 유스 사역자인 리사 송 전도사로 Fearless의 3가지 주제, 1)Fearless Sons & Daughters(Identity, Healing, Deliverance), 2)Fearless Love of God(Encounter, Pursuit, Presence), 3)Fearless Disciples(Calling, Mobilization, Missions)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강사에 대해 “2세 사역자로 뉴욕여린양교회에서 자라났고,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현재 유스사역자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서 설교만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찬양은 “Convergence Worship Pastors” 팀이 담당했다. 이 찬양팀은 신학생, 대학생, 대학(cruz, 전 kccc) 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동안 헌금송은 가스펠 고등학생인 Hope Kwon(윈즈장로교회) 형제가 찬양했다. 이날 뉴욕가정상담소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회 주제 같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으라’고 호소했다. 청소년센터는 대회 2일간의 헌금을 뉴욕가정상담소에 전달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예년과 같이 1만 달러를 지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지난 19일 프라미스교회 체육관에서 2018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회장 단독후보들 박수추대 뉴욕교협 제 44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정순원 목사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 44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려 3명의 단독후보 및 감사들이 모두 박수로 추대됐다. 회장 이만호 목사 사회로 총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 임원선거 시간에 김해중 목사가 단독 출마한 정부회장 3명을 그대로 박수로 받자고 동의집을 내자 총회원들은 모두 박수로 추대했다. 이로써 회장에 정순원 목사(빛과 소금교회), 부회장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평신도 부회장 김주열 장로(뉴욕목양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이어진 감사선출도 2명의 후보 김영철 목사와 김기호 목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강영구 장로 등 3명이 역시 박수로 추대됐다. 정순원 목사는 “45회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기로 출발하게 됐다”며 “뉴욕교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감사하례만찬준비위원장 김재권 목사와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할렐루야대뉴욕복음화대회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



뉴욕교협 제 44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달했다. 회칙수정 시간에 회장 이만호 목사는 “44회기에서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법규위원회 유상열 목사는 “이 시대에 맞는 실현 가능한 법이 총체적으로 개정되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특별위원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안건은 45회기 신안건으로 특별헌법개정위원회 조성이 통과됐다. 또 신안건으로 김영식 목사(증경회장)는 “교회정화 작업으로 회원교회 정리를 제안했다. 이 안건은 헌법 내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회계(이광모 장로) 및 감사보고(김기호 목사)는 총지출 337,989.99달러, 총수입 325,899.15달러, 잔액

12,090.84달러로 보고됐다. 신임회원으로 뉴욕새싹교회(이현숙 목사), 가나안임성교회(김용해 목사), 뉴욕함께하는교회(박시훈 목사), 뉴욕은혜사랑교회(안경순 목사), 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박영수 목사) 등 5명이 가입됐다. 44회기는 지난해 11월 회장, 이사장, 임실행위 취임예배를 드리고 출발해 스티브 전담 △신년감사 및 하례만찬 △공로상 포상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성경세미나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목회자 세미나 △청소년할렐루야대회 등을 치렀다. 이 행사를 위해 4회의



제 29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이종태 목사, 부회장 정기태 목사 제 29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정기총회

제 29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저녁 7시 열려 신임회장에 이종태 목사, 부회장에 정기태 목사를 선임했다. 산수갑산2에서 열린 총회는 회장 이종태 목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원선거에서 전임회장단 회장 이원호 목사가 임원선출에 대해 설명했다. 이원호 목사는 “총상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승계하고 부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회장 이종원 목사가 고사함으로 회장은 이종태 목사가 연임하고 부회장으로 정기태 목사(전임회장)가 다시 한번 수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박수로 추대했으며, 여자부회장 최화숙 전도사와 감사 노기승 목사, 김창렬 목사도 유임됐다. 회계보고는 회계 김은숙 전도사가 총수입 17,676.72달러, 총지출 17,480.76달러, 잔액 195.96달러로 보고했다. 이날 신안건으로 임원회에서 내놓은 1)회장임기 연장 2)전임총무 혹은 사무총장제 도입 3)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동문들은 1)안과 2)은 적절하지 못하며, 3)안은 부담없이 형편대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학감으로 선임된 허윤준 목사(10회)를 소개했으며 허 목사는 “최선을 다해 개혁주의 신앙으로 학생들을 잘 훈련하도록 하겠다”며 “김성국 학장을 비롯, 동문들과 잘 교류해서 함께 학교를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최근 고든콘웰과 Th.M 과정 뉴욕 뉴저지 지역 디렉터가 된 이규본 목사(1회)는 “동부개혁장신도 ATS 정부인가를 받아야한다”며 “동부개혁장신의 커리큘럼은 어느 미국 신학교보다도 훌륭하다”고 강조하고 고든콘웰 한국어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최화숙 전도사, 성경봉독 이경남 전도사, 설교 이종태 목사, 광고 장규준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태 목사는 “꿈을 잃지 말자”(창41:37-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인내, 신실함, 정직함을 배울 수 있다”며 “요셉의 꿈이 우리 동문 가운데 있어서 학교가 더 성장하고 변화해 많은 일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한순규 2대 담임목사...유재도 목사는 선교사로 뉴저지 땅끝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뉴저지 땅끝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가 10월 14일 오후 5시 열려 28년 동안 사역한 유재도 목사가 은퇴하고 한순규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한순규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은퇴하는 유재도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유재도 목사의 신앙 교훈을 받들어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충성할 것을 모든 분들 앞에 엄숙하게 다짐한다”고 인사했다. 한순규 목사는 순복음신학교와 나약칼리지 졸업, 뉴브런즈윅신학교 수학, 골든게이트신학교 졸업

및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뉴욕에일장로교회와 샌디에고열방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한운선 사모와 사이에 3딸을 두었다. 한편 유재도 목사는 은퇴인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나의 부담을 주셨다. 너는 교회이름을 땅끝교회라고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한번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보라고 도전을 주셨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3년 동안 스페니쉬를 공부했으며, 조기는퇴하고 내년 1월부터 중남미로 가서 선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교육중심 선교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은퇴하는 유재도 목사부부와 2대 담임 한순규 목사부부.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2절을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자식을 Children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hildren은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그토록 자식을 갖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부인인 '브닌나'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닌나'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갖지 못한 자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는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까지 한나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나와 브닌나는 서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행복하

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9가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와 브닌나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치 때문에 사역하기가 힘들어 3번이나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며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이 내겐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같이시라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에게 고백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복을 전파에 더 힘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규 담임목사 부임 및 원로장로 추대 OC제일장로교회 설립41주년 기념 감사예배



OC제일장로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종규 목사와 추대된 원로장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는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김종규 담임목사 부임식과 2명의 원로장로 추대식을 가졌다.

김종규 목사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3대 담임목사 됐다. 41년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 새벽기도에서 교구기도에서 청빙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것이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기도와 수고해주시는 장로님들의 노고와 부교역자의 헌신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하나 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다면,

우리교회는 새로운 역사 써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철 목사(임시당회장) 집례로 시작된 예배는 하태준 장로가 기도했으며 조은하 목사가 성경 봉독했다. 시온찬양대 찬양에 이어 정철 목사가 ‘사셨네 이겼네’(딤후1: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원로장로 추대식을 열고 최영우 장로와 원덕상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으며 추대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김종규 3대 담임목사 부임 시간에는 정철 목사가 김종규 목사를 소개한 뒤 김종규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비전교회 장종택 목사 초청 미주찬양집회에서 장종택 목사가 회중들과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라” 미주비전교회 장종택 목사 초청 미주찬양집회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는 장종택 목사 초청 미주찬양집회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장종택 목사를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했다.

20일 오후 7시에 열린 첫날 집회에서 장종택 목사는 사무엘상 2장 35절을 설교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중심이 된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기독교의 50%가 토

속신앙과 샤머니즘의 신앙생활, 30%가 유교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20%정도만이 기독교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며 “예배와 삶은 동일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삶이 되어 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애를 쓴다면 영의 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사용해서 연락하고 가난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다. 영원히 취할 수 없는 물질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맞추어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 어리석음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귀함의 포기이기도 같은 것이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사람이 생명을 내려놓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방문을 출입할 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벗어난 신발을 유심히 보았다고 한다.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다시 그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소망한 것이다. 왜 그런가? 생명 있는 사람만이 신을 신을 수 있고, 신의 용도인 걸음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신은 아버지 집에서 생명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는 것임을 설명한다. 탕자가 굶어 죽은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생명의 회복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발에는 신이 다시 신겨진 것입니다.

엘리멜렉 근족의 신 벗음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생명들을 포기한 것임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같은

존귀함을 헌신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손해가 되어도 지킬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존귀함을 주는 것이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

엘리멜렉의 근족은 신을 벗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과 의무를 포기하게 됨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명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사명 앞에 신을 벗어주지 말아야 한다. 자기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25장은 “신 벗어준 집”이라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라면, 뜻이 나오미를 좇듯이 바짝 따라가야 하고, 사명과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승리하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요구할 때 물러서지 않고 생명 바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제, 강사 김성국 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설립37주년 감사 부흥사경회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환영 목사)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사경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김성국 목사(뉴욕퀸즈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환영 목사 인도와 헤세드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집회에서 김성국 목사는 ‘폭풍의 밤’(행27:14-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를 했다.

김성국 목사는 “모든 인생에는 크고 작은 바람이 있으며 폭풍을 만나기도 한다”며 “그러나 폭풍 너머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어올 땐 먼저 내안에 우상을 버려야 한다. 둘째, 폭풍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하며 셋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이 있는 만큼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 강조하며 “사명이 있는 한 고난과 풍랑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우리들을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 말했다.

이날 집회는 김성국 목사가 합심 기도를 인도한 후 축도로 마쳤다.

한편 김성국 목사는 둘째 날 새벽집회 ‘튜닝’(시108:1-5), 저녁집회 ‘미래로 가는 길’(렘29:4-14)이란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쁨의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애나하임선교교회 창립예배에서 원하트 워십팀이 찬양인도하고 있다. 우측위 원안은 심경준 담임목사

애나하임 한인선교교회 설립예배 심경준 담임목사 “시대적 사명 잘 감당...”

애나하임 한인선교교회(담임 심경준 목사) 설립예배가 21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심경준 목사는 “애나하임 한인선교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저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원하트 워십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설립예배는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피서대학교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가 축사했으며 김규영 선교사(인도네시아), 신수연 목사(한국), 최용준 선교사(과테말라)가 축하의 말씀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에스터당 목사(West Anaheim UMC 담임)가 기도했으며 심경준 목사가 교회소개를 했다.

강찬 목사가 축송을 불렀으며 정은향 목사(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가 ‘건강한 교회’(마 16:15-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서미혜 집사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김영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심경준 목사는 아주사피서픽신 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고 풀러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 과정 중에 있으며 감사한인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담당했다. (박준호 기자)

충성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기복신앙은 오직 복이 신앙의 조건이다.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다. 돌부처이든, 조로아스터교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에게 복이 될 듯 하면 화장실 돌맹이도 섬기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그러나 참신앙은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명과 순종의 삶을 구한다. 사명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늘 신앙은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를 자녀삼아 교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늘의 축복이 사명과 함께 예비되어 있다. 그 사명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은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명이 있고, 당연히 자신이 받을 축복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축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작은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맛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명을 외면하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일 따름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가차도 없이 퇴장하고 말 것이다. davidjeon@yahoo.com

서부교회게 게시판

캠코럴 제 13회 정기연주회

캠코럴(지휘 이수정 집사) 제13회 정기연주회가 28일(주) 오후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4)926-3031, 514-2611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28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회개, 부흥, 회복,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310)995-3936, (213)255-1725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 회계 무료강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설립 및 운영과 회계 관련한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의 도서관의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에서 개최한다. 11월 2일(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Tax Exempt가 취소된 비영리단체가 어떻게 다시 자격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됐으며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과 회계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는 제임스 구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icmm@churchhomepage.org ▲문의: (714)393-4595(Center)

은혜한인교회 목회자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오는 11월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본 교회 웨딩채플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이며 시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저녁 7시부터 9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목사, 전도사, 신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목회자 세미나의 등록비는 50달러(미자립교회 목회자 30달러)다. ▲문의: (714)446-6200

사우스베이 한일 하모니 콘서트

사우스베이 한일 하모니 콘서트가 27일(토) 오후 2시 토렌스 지역에 위치한 FS루터커뮤니티(2706 W 182nd St)에서 열린다. 성령의 열매루터교회(담임 김홍순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한국과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자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다과를 즐기며 서로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310)339-9635

기쁜우리교회 말씀잔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말씀잔치가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일(금) 오후 7시, 3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4일(주) 2-3부 예배 ▲문의: (818)662-0400

샘신 목사 모친 고 한근에 권사 장례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신 목사의 모친인 한근에 권사 장례예배가 18일 오후 6시 한국장사사에서 열렸다. 엘리자 김 목사 사회로 열린 장

례예배는 엄규서 목사(목사장로불찬양단 단장) 기도한 뒤 권대근 목사(나선생물교회)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계14: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에스터유 사모가 조가를 불렀고 샘신 목사가 추모사를 했다.

한편 하관예배는 19일 오전 11시 헬리웃 포리스트론에서 가졌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샘신 목사(머트리엔지신), 손자, 성민 우창, 손녀, 소피아(사위 김팀) 샌주라 증손녀, 애리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목사회 샘신 회장의 모친 고 한근에 권사 장례예배가 열렸다

제 14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 11월 3일(토) SF Cornerstone Fellowship Church

제 14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오는 11월 3일(토) 샌프란시스코 지역 San Lorenzo에 위치한 Cornerstone Fellowship Church(담임 Michael L. Wilson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주제는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 할지이다’(시 96:3) 그리고 부제로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61:1)이다.

금년도 선교대회에는 이스트베이 중심의 한국교회를 비롯 미국(흑, 백인), 중국, 타이완, 러시아, 루마니아, 라틴아메리카, 헝가리, 일본, 인도네시아, 태평양 아일랜드(사모아, 톱가, 피지, 괌, 하와이), 몽골, 에티오피아, 라오스, 타이랜드,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아메리칸인디안, 에티오피



아, 미얀마, 이스라엘(Jewish Messianic), 아랍(사우디, 쿠웨이트, 예멘,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레바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35여 민족 교회가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선교대회를 갖게 된다.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목회자와 교회지도자 100여명이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합심 통성기도를 한다.

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20개 민족의 지역 선교 보고가 있다.

주강사는 Leroy Gainey 박사(Gateway Seminary)와 Nancy Ortberg(Transform Bay City Ministry, Menro Park Presbyterian church) 대표가 선정됐다.

패널에서는 Kevin Murphy 목사(Fuller Seminary 교수)의 사회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61:1)의 성경말씀으로, 베이 지역 목회자, 교수, 전도사 등의 패널 발표와 함께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가 갖게 된다. www.visionGIM.org ▲연락처: (925)639-9527 (기사제공: GIM)

“10만명 순수 기도집회로 회개 불길 일으킨다”

28일 광화문서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 주요 교단장 초청 보고회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엠베서더서을 호텔에서 오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일천만 기도대성회’의 교단장 초청 보고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툼과 반목, 분열로 얼룩졌던 교계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80년 전 일제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최 측은 이번 성회에 10만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기획담당 정성진 목사가 먼저 인사말을 전했다.

정 목사는 인사말에서 “선교 초기 암울했던 조선 땅에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한국교회는 세워졌고 1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번 성회는 당시 선조들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성회를 통해 한국교

회가 8000만 민족을 섬기는 전란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일제강점기 민족이 범한 신사참배의 죄과를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회 취지 설명에 나선 대화장 윤보환 감독은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난 중에 일제의 총칼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한 죄와 교회 분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과오를 통렬히 회개하는 집회”라고 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그 어떤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감독은 “이번 성회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기도집회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교회 관계자가 ‘한국교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자로 나서 달라’는 말을 듣고,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재자 역할 감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엄 목사는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회의 기회이자,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신사참배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요, 내 죄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한국교회 재부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회장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개혁’을 전제로 하는데, 이 개혁은 회개운동을 통해 순교신앙을 계승하고 연합하는 일 외에 대안이 없다”며 “회개의 바탕에서 내년 3·1운동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전 감독회장은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을 똑똑히 듣는 집회,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는 집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특히 연합을 위해 각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총괄을 맡은 신광수 목사가 행사 개요와 조직, 순서 등을 보고했다.

각 교단 교단장들은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과 성격 달라”

한국교회법학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세미나

종교적 영역거부와 종교인과세 등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적 영역거부와 관련해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교계가 ‘영역 자체 거부자’와 ‘집중 거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국내 영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

영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이 아닌 종교의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 드는 것을 거부하는 영역거부자들에게는 통상적인 군사훈련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뒤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투 병과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병역 이행에 따른 보상을 늘리는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을 거부한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면서도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

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헌법재판소에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과 근로소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헌재 학회장은 임법기관이 이런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봉사 희생 자선 교육 의료 등 종교인의 기능을 고려할 때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현재가 아닌 임법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해 당시 교회 측은 제직회를 열고 교회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진 목사는 지구촌교회가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된 사고가 갈려있다”면서 “기독교인이 정치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신앙인을 압적 존재로 몰아가려는 편향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명의 목회자는 이번 법안 파동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한마음만 댈뎀엔 잘못된 법안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부기총의 신앙수호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천시는 현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부기총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젠더·gender)평등이 아닌 양성(sex)평등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교계가 극단선택 예방위해 협력실천”

4대 중단 포럼서 선언문 발표

자살예방을 위해 종교계와 서울시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주요 종단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황순찬)와 함께 ‘생명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라이프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가 참가했다.

자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1만2000여명이다. 10~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일

광주·전남 성도 3만명 ‘퀴어반대’

21일 광주 금남로서 음란행사, 성평등 정책 비판...

‘5·18 민주광장 팬티축제 웬말이냐.’

21일 광주 금남로 4가는 퀴어행사에 반대하며 3만여명의 성도들이 들어올린 붉은색 손파켓으로 장관을 이뤘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광주성서화운동본부 등은 광주 금남로 4가 500m 구간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동성애 옹호·조장 정책을 비판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3만여 성도들이 21일 광주 금남로 4가 500m 구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고만호 전남 여수은파교회 목사는 “성별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젠더)평등 정책과 동성애 문화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동성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썩게 하는 잘못된 젠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성애를 하는 0.1%도 안 되는 극소수만 보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20%의 국민은 보이지도 않느냐”고 성토했다.

고 목사는 “문제인 대통령은 분

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켜달라”면서 “올바른 동성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 역사에 길이 남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연환 문흥제일교회 목사도 “인류역사상 성적 타락이 오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교회가 하나 돼 잘못된 성문화를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21일 광주 금남로 4가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 여수 담양 화순 고흥 등지에서 온 성도들은 회개기도 후 퀴어행사를 허용해준 광주시장에게 강력 항의했다. 주최 측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NAP 독소조항 삭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동성애 반대 활동 탄압하려는 시도 중단, 광주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웅섭 광주시장에게는 동성애 행사에 광장을 사용토록 허가해준 잘못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5·18 문화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녹색당, 동성애자이에

즈에방센터 등이 40개 부스를 설치해 물품을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았다. 경찰은 퀴어행사장 주변에 철제 칸막이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퀴어행사장 앞에서 항의하던 박장선(65) 5·18구속부상자회 부위원장은 “민주화 성지에서 저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분통이 터져서 20여명의 부상자와 회원들과 함께 달려 나왔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행사를 더러워서 못 보겠다. 광주시장이 허가해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꼭 하고 싶다면 앞으로 실내에서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집회를 마친 성도들은 5·18문화광장 부근을 둘러싸고 오후 7시30분까지 찬양과 기도를 하며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조광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총무는 “이 시장이 ‘퀴어행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불허하겠다’고 17·18일 목회자들에게 약속했는데 뒤로는 행사를 허용했다”면서 “퀴어행사와 관련해 목회자 등이 참석하는 각 단체인 회의를 19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조 총무는 “이번 퀴어행사로 이 시장에 대한 지역교계의 불신감이 매우 커졌다”면서 “내부에서 시장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취소 “조만간 복귀”

서울중앙지방법원 22일 전 감독회장 이의신청 수용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2일 이성현 목사가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 감독회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취

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4월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내 아들 다리까지 절단시켰다”

은혜로교회 신육주 악행 파헤친 ‘그알’

은혜로교회 신육주 때문에 한 남성의 다리까지 절단하게 됐다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방송된 SBS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아들은 왜 돌아오지 않나?-베리칩과 집단결혼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교회 신육주씨의 악행을 낱낱이 공개했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8월 과천 은혜로교회의 타자마당 영상과 피지이주의 실상을 방송해 주목 받았었다. 방송 직후 영국의 BBC와 가디언, 호주 ABC 등 해외 언론들도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수년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모씨를 집중 추적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정씨는 2012년 한인 교회에 다니던 아들이 감금 및 결박으로 다리까지 절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먹고 있는 약을 끊게 하고 치료해주겠다고 했다”며 “딸과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겼다”며 말했다. 정씨의 아들은 2012년 9월 뉴욕에서 다리를 절단했다.

정씨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 모두 신씨를 따라 한국에 왔고 자신도 가족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이에 대

해 신씨는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정씨의 아들과 딸이 마약 부작용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주장대로 영상은 실제로 있었다. 정씨의 아들은 “마약 부작용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다”고 말했고 정씨의 딸 역시 “말씀을 듣는 중 제 동생이 마약 부작용 때문에 발작을 해 나와 약혼자가 동생을 묶었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사건이 발생한 미국으로 가 정씨의 후견인인 황모 변호사를 만났다. 황 변호사는 정씨의 다리 절단은 교인들의 책임이 아닌 신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던 정씨는 누나와 약혼자에 의해 발과 손이 결박된 채 감금돼 학대당했다.

정씨의 누나와 약혼자는 이 사실을 자백했고 그 과정에서 신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들은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신씨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청구했고 한 달 전 정씨에게 우리 돈 4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 변호사는 “정씨가 재할 중 어머니로부터 납치돼 현재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정씨 가족을 찾아 교회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씨의 어머니를 만났다. 정씨의 어머니는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아들은 이곳에 없다”고 말했다.

교회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제작진은 정씨가 교회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신도들은 “정씨가 이곳에 없다”고 부인하며 “가해자는 신육주가 아니라 절단 수술을 한 의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제작진은 44억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제보받았다. 또 정씨가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교인들이 소송 때문에 그의 존재를 계속 숨기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

제작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를 포착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씨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교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씨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약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선 안 된다”며 정신과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엔 ‘신육주’ ‘은혜로교회’ ‘그것이 알고싶다’ 등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남태평양 피지에 집단 이주한 은혜로교회 신도들을 구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 사임 의사 수용

지구촌교회가 21일 오후 제직회를 열고 진재혁 담임목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국 기독교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진재혁 목사는 지난달 16일

주일설교 도중 “담임목사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 한다”고 했다.

진 목사의 이 같은 사의 표명에

“기독교 복지시설서 예수사랑 표현 말라는 건 억압 의도”

종교자유 막는 법안 저지한 부기총 사회인권위 3인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전격 철회됐다. 지난 2개월간 법안 철회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 부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이주형 목사) 소속 3인의 목회자를 18일 부천 원미구 예담교을침례교회에서 만났다.

부기총 사회인권위원장인 윤문용 예담교을침례교회 목사는 “부천에 지역구를 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의식,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게 골자였다”면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상 차벌금지법이였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 목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기독교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 복음전도와 세례를 베푸는 길은 사실상 막혔을 것”이라면서 “결국 복음전도의 길을 막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독교 설립이 낱까지 훼손시키겠다는 의도가 법안에 들어있었다”고 분석했다.

부기총이 이 법안을 인지한 것은 8월말이다. 이주형 대표회장과 성시학 목사 등은 곧바로 사회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김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한 각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찾아냈다. 그리고 고영·수원·시흥 기독교총연합회와 연대해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게재했다.

부기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단지과 서명지를 만들어 부천지역 1300개 교회에 일괄 배포했다. 국회의원 사무실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지난달 13일 부천역 광장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고 1인 시위도 했다.

성봉권 보배침례교회 목사는 “법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음전도의 길을 막겠다는 생각은 교회 입장에서 타협은 고사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반대집회를 열고 각 교회별로 서명작업에 돌입하니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김 의원 측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회자는 부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인담당업무를 맡는 서일승 목사였다. 서 목사는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차별을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 시설운영자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이미 종교 강요 행위가 금지돼 있고 구제책까지 마련해 놨는데 추가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까지 통과됐다면 고소·고발이 일상화돼 기독교 사회복지의 존재기반이 통째로 흔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올 때는 문제제기를 았다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뒤에는 시설의 존재자이듯이 예배와 전도, 식사 전 기도조차 못하게 하려는 시도의 밑바닥엔 기독교를 범죄집단으로 몰겠다는 잘못

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자살을 막기 위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종교는 사회의 거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신론자가 46%에 달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로할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단별로 자살을 보는 관점 발표도 이어졌다. 기독교 대표로 나선 임용택 라이프프호프 이사장은 “교회에서 ‘자살은 죄’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족 축은 지인이 자살을 경험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이들과까지 사람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들이 지역과 함께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 사례로 라이프프호프가 서울과 경기도 등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펼치고 있는 ‘라이프 워킹생명보듬 함께 걷기’를 소개했다. 포럼에선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보는 자살문제 및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교토소 선교칼럼 (50)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믿음의 투쟁

헤덜은 훌륭한 리더였다. 그녀는 언제나 내 책의 수정을 도와주고 기도회를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왔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헤덜 워러하우스

나는 올해 서른이 된 여자다. 고향은 콜로라도주 덴버이고 마약에 빠진 부모와 그 밑에서 폭행당하며 마약과 연루된 삶을 살아가는 오빠랑 살았다. 내가 6살 때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후 플로리다 데이튼 비치로 이사한 후에도 아버지는 오빠와 함께 마약을 팔고 운반하는 일을 계속 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집에 왔더니 경찰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붕 위에도 경찰들이 올라가 있었던 광경은 어린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마약판매와 운반으로 아버지는 10년 형, 17살 오빠는 5년 형을 받았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나는 그 충격으로 가솔과 음주를 반복하며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11살 때 오빠 친구를 만나서 사귀다가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나이는 29살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두 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남편이 2005년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나 역시 복역 중이었는데 그곳은 외부에서 직장을 다니며 형기를 채울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몇 번 규율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덴버 여자 수용소로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야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삭이 되었을 때 화장실에서 미끄러졌고 그때부터 허혈이 시작되었다. 교도소에 알렸지만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분노가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죽은 아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분만하는데 48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아 그 고통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코와 입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죽은 아들을 꺼안고 우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다. “기다려 봐요. 아기가 깨어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데려가지 말라고요” 하고 울면서 애걸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데려갔다.

교도소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나님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 뒤통을 사산으로 인한 부종으로 소변도 못 보는 상태였지만 호스를 꽂아 교도소로 돌려보내졌다. 의사는 내가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2008년 2월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후 남편과 다시 합쳐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남편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아들과 나를 지하실에 가두고 자기를 떠나면 둘 다 죽인다고 칼로 협박하다가 내 입을 찌르게 되었다. 36바늘을 꿰매는 대 수술을 한 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은 경찰과 마찰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5년 징역형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에 느꼈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방탕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식도 먹여 살려야 했고 마약도 사야 했기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새 남자친구를 통해서였다. 그가 나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나와 그가 함께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16-32년 형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그 후에 재판을 받기 전에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그 뒤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법정에서 나가는 날짜를 놓쳤다. 결국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다른 주에 도피해 있었다.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콜로라도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는 자살충동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다.

2010년 12월 3일 연방정보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는 도망 다니다 지쳐서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왔다.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삶은 고통

의 연속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아픔, 분노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함께해 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악몽을 꾸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배웠다. 지난주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일하십니까? 왜 내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요? 잘 살아 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길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시원을 갠으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내가 나의 임의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시66:11-20).

매일 매일이 믿음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응답하신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마귀를 예수이름으로 물리치면 나의 눈물이 사라진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 다른 재소자들과 뜰에 나갔을 때 한 여자가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은혜스러웠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믿음 때문에 나는 강해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yonghui.mcdonald@gmail.com

이슬람민족주의 확대 따라 기독교 핍박 증가 한국 VOM, 중앙아시아 예배 금지, 체포, 고문 등 밝혀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민족주의가 더 거세지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 금지, 체포, 고문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 체포된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은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매 맞고 벌금을 물기 쉽습니다.”(한국VOM 폴리 현숙 대표)

전 세계 모든 곳의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함께 일하는 한국 VOM의 중앙아시아 동역자들은 자신들 나라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지난 8월, 타지키스탄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 명을 체포, 개인당 한화로 백십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타지키스탄 국민 6개월 치 월급보다 많은 액수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종교를 새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를 배포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9장 489조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오순절과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교회들을 공격했다. 2018년 상반기 여섯 달 동안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80차례 기소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위협 거리로 간주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당국자들이 목사나 신자들 집을 수색하여 물건들을 압수해갔다. 이 나라에서는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 일상적 기독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 VOM의 카자흐스탄 동역자 가운데 장로교 목사가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9개월 수감되어 보고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동료 죄수 100여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 지역에서는 성난 어떤 부부가(할머니도 함께) 한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항의했다. 그 부부는 경찰을 데려왔고 경찰은 그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교인들 각 사람에게 물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공식적인 예배 장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이다. 은밀하게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다.

우즈베키스탄은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1999년부터 교회를 허가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인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국가에서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도 핍박받는다고 설명한다. 타지키스탄에서 일하는 한국 VOM의 동역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십대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소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식구들은 소년을 집에 가두고 때렸다.

“식구들은 소년을 몇 개월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았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핍박이 커질수록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한 군데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니까요.”(VOM 동역자)

한편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www.vomkorea.com 을 방문해서 ‘기도후원-기독교 박해국가 정보’로 들어오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계 68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슬람 개종 거부 크리스천 열다섯 살 소녀 테러집단의 평생 노예로 전락

지난 2월 납치됐던 열다섯 살 크리스천 소녀가 이슬람 테러집단의 평생 노예로 전락했다. 이슬람 테러세력은 소녀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녀는 언제 죽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나이지리아의 온라인 뉴스 매체 ‘더케이블(TheCable)’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분과인 ‘샤이프리카이슬람국가(The 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ISWAP)’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레아 샤리부(Leah Sharibu)를 평생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레아는 지난 2월 19일 나이지리아 담치에 있는 국립여성과학기술대학을 급습한 ISWAP 조직원들에게 납치됐다. 당시 끌려간 110명의 여학생 중 대다수는 지난 5월 석방됐다. 하지만 고문을 받던 5명이 숨졌고 레아는 이슬람 개종을 끝까지 거부해 풀려나지 못했다.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와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 등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들은 그동안 레아의 석방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4면으로 계속)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판촉상인 US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Address :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 TEL : 718-762-1200 / 2000 ◆ E-mail : bookskorea@gmail.com ◆ Kakaotalk : moonsyang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1)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보험과 성경적 원리

A. 보험(Insurance)

보험(insurance)이란 용어가 문헌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무렵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보험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로 역사자들은 믿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보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잠언 22장 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7장 24-27절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과 관련된 성경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다.

B. 보험의 성경적 의미

인 작업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나,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재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해 위험을 보장 급부하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명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훨씬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손해 방지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서 모든 일들을 단순히 금전적

선불복지보험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선불법률보험 등과 같이 보험료가 "선지급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 의료 부문 지출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개인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단독 항목으로는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 연금 비용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문이다.

생명 및 장애 보험은 한 가정의 주소 소득 제공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당하여 소득이 중단될 때 생길 수 있는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성경적 원리 이외의 또 다른 성경적인 원리를 토대로 하여 운영된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

위험에 대해 적극적 예방조치와 손해방지 활동 수행 요구 희생적 선택... 위험 분산 효율적 수단으로서 중요성 증대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장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수님은 폭우를 대비하여 그 집을 보호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셨다.

잠언의 '슬기로운 자'에 관한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는 모두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취한 행동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오늘 날은 우리들이 불확실한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위험에 대해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책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건축자가 일단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고, 그 후에 홍수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대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사선에 장래에 발생할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안전하고 생산적

인 조건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은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보험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C. 보험의 영역

상해보험(Casualty Insurance)은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의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보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에서 언급된 홍수 위험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이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해 보험은 그 손실을 회복 해주거나 훼손된 재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준다.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보험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돌볼 것을 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험 예측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발달로 인하여 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보험은 우리들이 손실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것은 가족들의 장래의 필요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자신의 소비를 거기에 희생하는 사랑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혜를 개인의 보험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적용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역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집중하도록 하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들 자신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늘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서의 권고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선의 뜻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탈장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아랫배가 묵직한 통증

외과적 시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수술 후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해야 하던 경우도 요즘은 수술 후 24시간 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도 감소해 그 결과 수술 후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임 씨씨는 약 한달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불편함을 느꼈다. 통증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좀 더 심하게 느껴졌고, 오래 걸을 때는 불편함이 더욱 심했다. 잠을 자거나 누워있을 때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또 기침을 할 때 아랫배가 나오는 느낌도 받았다. 처음에는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도 먹어 보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왔다.

임씨는 과거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다. 현재 종합 비타민 이외에는 복용하는 약이 없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술은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 복부 검진 상 환자가 일어선면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졌지만 눕게 되면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다. 또 아랫배에 힘을 주면 사타구니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 임 씨는 서해부 탈장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

탈장이란 복강 내 장기가 복부 벽에 생긴 틈새를 통해 빠져 나오는 질병을 말한다. 대퇴부, 횡격막, 배꼽 등에도 생기지만 넓적다리과 하복부 사이에 발생하는 서해부(사타구니) 탈장이 복부에 생기는 탈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해부 탈장은 주로 남자에서 발생하는데(남녀 발생 비율은 9:1) 남자의 약 25퍼센트가 일생에 한 번쯤 서해부 탈장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 미국에서는 연간 70만 명이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는다.

소아에게 생기는 탈장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 탈장은 비만이나 만성 변비, 만성기침 등으로 배속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복부의 근육이 약한 경우에 생긴다. 예를 들면 복부에 물이 차서 배가 항상 불러있는 경우는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탈장이 쉽게 생길 수 있다.

탈장은 손으로 밀어 넣거나 누우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탈장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복벽의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드물게는 장의 일부가 구멍에 끼어 장이 썩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탈장의 원인은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탈장을 유발하는 만성변비가 있거나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 원인을 치료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행위나 흡연 습관을 피하고 체중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

(13면에서 계속)

레이의 부모도 서방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딸의 석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ISWAP는 잔혹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석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지난달 16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소속 사이푸라 아흐메드를 처형하는 한편 한 달 안에 레이 등 인질또한 처형하겠다고 경고해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처형 시간이 다가오자 ISWAP는 더케이비에 보낸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레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함께 감금 중인 크리스천 간호사인 앨리스 은가다와 함께 평생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의 교리에 따른 것인 만큼 레이를 어떻게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가다는 두 아이의 엄마로 유니세프에서 활동하다 납치됐다.

ISWAP는 앞서 지난 3월 ICRC 구호 요원으로 활동하다 납치된 여성 하우와 레만을 처형하는 영상을 더케이비에 보냈다. 더케이비는 "테러 세력들이 레만의 손을 묶고 강제로 무릎 꿇게 한 뒤 가까이서 총을 쏘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나이저리아의 알하지 라이 모하메드 정보 문화부 장관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악랄하고 잔혹하고 사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납치자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나이저리아에서는 보고하람 등 이슬람 테러세력들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테러가 횡행하고 있다. 보고하람은 특히 수천 명의 크리스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등 악명을 떨치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across the US and Canada.

Food in Bible(10)

포도주 (Wine) (하)



최성은 (Ph.D., RD, 킨즈칼리지 교수)

성경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시각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아마도 그 차이는 마시는 양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104:15). 잠언에서는 또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잠9:5-6).

한편 성경 여러 곳에 포도주를 과음하여 죄를 짓는 기사들이 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노아가 술을 과음하고 취하여 자막에서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

노, 붉은 눈이 뉘게 있노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라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잠23:29-30).

성경에 나타난 술에 대한 경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쏘 것이며...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꺾기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잠23:31-35).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롬 13:13).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표현 '술 취하지 말라, 술 즐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명령(잠언)

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창9:20-23).

잠언으로 덕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다른 예는 창세기에 나타나있다. 구약시대에 롯이 술에 취해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여 아기를 가지게 한 사건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높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할 때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에게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높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창19:32-35).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음을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있다.

"재앙이 뉘게 있노, 근심이 뉘게 있노, 분쟁이 뉘게 있노, 원망이 뉘게 있노,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노

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잠20:1). 가장 지혜 있는 왕 솔로몬도 술을 즐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한다("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23:20).

그러므로 신앙에서는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술을 즐기지 말 것과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꼽고 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딤후 3:3, 8).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처럼 우리는 알코올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삼상1:14).

한나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에 취했던 것이다. 우리도 술에 취해 세상을 비틀거리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온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덕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드는 술, 이 술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겨본다. 주(主) 내신 주(酒)님을 섬기는 신자가 없기를 바라며.

cse1001@gmail.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솔로몬이 여호와의 위하여(왕상6:1-6)

솔로몬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누리고 지혜와 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잘됐을 때 자기를 위해 왕궁을 짓지도 않고 곧바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지 480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본문에서 성전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 먼저 성전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38절에 성전건축을 다 마치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년 동안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건축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건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왕상6:7-10)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건축은 평화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말치와 도끼와 방망이를 사용하는데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일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아무나 와서 일반 건축물처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말고 정숙하고 평화로움을 유지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쓰는 모든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성전 안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왕상6:11-18)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전건축의 목적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지어진다. 구체적인 목적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외부공사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말씀배우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복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왕상6:19-38)

성전건축은 내실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밖에서 보기에선 그냥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온통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전 외부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금으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내부가 전체적으로 금으로 치장됐다는 것입니다. "금", "정금"은 "순전함"과 "고귀함"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건축은 사람 눈에 보기

에 멋있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불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외부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고 성도들이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 개인도 바로 이러한 성전으로 지어져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삼십년동안 건축하여(왕상7:1-11)

성전건축이 7년반 만에 완공된 후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할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해 완공했습니다. 성전보다 6년이나 더 걸려서 지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과 비슷한 양식으로 짓기 위해서 합쳤으며 둘째는 살아야 할 집도 있어야 하고 재판해야 할 집도 있어야 하는 등 사용용도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자신의 집이 더욱더 귀하

고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집을 짓기 전에 신앙의 집을 먼저 든든히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먼저 바로 될 때 온전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토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왕상7:12-22)

우리 인생의 집을 성전을 떠나서는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과 같이 지었습니다. 다 지어놓고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전과 같이 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예

표함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같이 지었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nan, Roman Catholic, etc.

총신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총신 300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초대 이사장님으로 헌신하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10:30-37) 우리들의 모교인 총신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기고 내려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총신 멘들은 지금 이처럼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3만에 이르는 총신 멘들과 300백만 성도들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나 또는 한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모교 총신과 후배들을 바라보고도 피하여 지나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인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다면 이와 같은 모교 총신과 재학생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나 한 레위인이 되시기 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싸매어 주고 돌보아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신은 현재 교육부로부터 2년 임기의 관선이사(임시이사) 15명을 파송 받아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신대 역대 이사장들의 사신들이 걸려 있는 이사장실에서 제1부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2 부에는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3만여 총신



총 동창회장 박광재 목사가 예방합동 103회 총회현장서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호소하는 배너 앞에서 기념촬영

등문들과 총회와 총회산하에 속한 300만 성도들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관선이사들은 회의를 진행하기 전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 경 중히 부탁드리며 바는 총신대학 이사회의 석상에서 흡연을 허가나 음주를 하는 행위들은 삼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선이사들의 경우 그래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고 교양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분들의 양식은 행동을 기대 합니다. 관선이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강도 만난 총신을 싸매고 돌보고 다시금 살려 내라고 국가로부터 파송 받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총신을 정성껏 돌보고 살려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것인가? 반신반의 하면서 3만여 명의 총신등문들과 함께 전국의 300만 성도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총신의 상황을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으로 물고온 그리고 이렇게 까지 되도록 방치해온 잘못을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 모든 3만 여명의 총신 멘들과 300만 성도들은 하나로 뭉뚱 뭉쳐서 총신이 신속하게 정상화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총회와 총신의 오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재학생들만 등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네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총신에 자비를 베푸는 총신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는 "총신300만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교 총신을 사랑하는 총동문 선배들과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300만 성도님들 이시라면 어느 분이라도 큰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총신300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장학기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하였습니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만원을 후원하실 분들

- (1) 일천만원을 일시에 후원하는 방법
- (2) 100만원을 10회 분납하는 방법
- (3) 50만원을 20회 분납하는 방법
- (4) 30만원을 33회 분납하는 방법
- (5) 20만원을 50회 분납하는 방법
- (6) 10만원을 100회 분납하는 방법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평생에 단 한번 100불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현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평생에 단 한번 최소한 1만원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현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천불을 후원하실 분들

- (1) 일천불을 일시에 후원하는 방법
- (2) 100불을 10회 분납하는 방법
- (3) 50불을 20회 분납하는 방법
- (4) 30불을 33회 분납하는 방법
- (5) 20불을 50회 분납하는 방법
- (6) 10불을 100회 분납하는 방법

이상과 같은 다양한 분할 방법을 제시한 까닭은 어느 누구라도 총신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 하여금 큰 부담 없이 동참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신300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일천만원 이상의 장학기금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서구의 유명한 명문대학들의 경우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또는 우수한 기업들에서는 수익 내지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이르는 장학기금을 학교에 기부하므로 재학생들이 학자금을 염려하지 않고 학업연구에 전념합니다.
깨달음 유명한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고 그들의 모교들은 국제적인 명문대학들로 성장하여 모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교인 총신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몇 일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스탠포드를 방문했습니다. 스탠포드씨 가문에서 100만여명의 토지를 기부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근번 미국 방문기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모교 또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기사들을 연속적으로 접하였습니다. 명문 코넬대학 출신 찰스 F. 피니라는

사업가는 30년동안 8억달러(약9조원)를 익명으로 기부했고, 2017년 1월 그는 700만달러를 모교에 기부해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의 톱스타 주윤발 씨는 "전 재산 8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공동창업자 빌게이츠가 4억 6천만 달러(약 5천100억)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AP 통신이 28일 자료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칼럼을 통하여 해백남조 장로님께서 사당동 총신대학 부지 일만 8천평을 헌납하셨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백남조 장로님 같은분은 더이상 없는가요?", "우리교회가 제 2의 백남조 장로님 역할을 하게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총신300만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1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약속하고 봉헌해주시는 분의 경우 한국의 장자교단인 예장합동총회에서 운영하는 118년 역사를 자랑하는 개혁주의 명문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총신 300만 장학재단"의 초대 이사장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명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일평생에 가장 귀중한 명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 예를 택하라"(잠언 22:1)하셨습니다. 돈보다 명예가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마태복음 6장 19절), "오직 너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태복음 6장 2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중 하나에게 명수 한그릇이라도 주는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0장 42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부자들이 우리 모교 총신에도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 후 2018년 10월 27일 (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8대 총동창회장 박광재 목사 배상

"총신300만 장학기금"을 보내실 구좌번호 우체국 012450-01-002666 총신신대원총동창회입니다.

"총신 300만 장학기금"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신과 재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 주신 증경총회장님들과 부총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